



인천보육+

2024. Vol.62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INCHEO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손가락 명령을 줄이고,
그 손가락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리라.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줄이고,
아이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리라.
세계에서 눈을 떼고,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리라.

— 다이애나 루먼스



CONTENTS

목차

01

보육브리핑

02 · 2024년 어린이집 평가제

보육INFO

04 ·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의 시작,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
·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권리보호 영상 교육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생 정보

08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현장체험 견학지

보육 에피소드 공모전

12 '함께하는 보육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놀이 에피소드 공모전

29 '신나는 놀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센터소식

64 · 센터와 함께해요
· 센터의 지난 이야기

유관기관 소식

67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소식

부록

69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2024.
Vol.62

발행인 마미정 발행일 2024.8. 발행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전 화 032-431-4606~9 팩 스 032-431-4610
홈페이지 <http://incheon.childcare.go.kr> 이메일 iccic@icda.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 열린나무

2024년 어린이집 평가제

❓ 어린이집 평가제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보육과정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건강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 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 ”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공포(24.1.2.) 및 시행(24.7.3.)



변경 전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종합평가



평가지표

4영역 18지표 59항목
정량평가(N/Y)
구조적지표 > 과정적지표
(보육환경등) (보육과정등)

평가결과 공표방식

각 등급별(A,B,C,D)로
동일한 평가결과서

평가주기

A,B 등급 : 3년
C,D 등급 : 2년

사후관리

사후방문-확인점검
최하위 등급 조정

중복지표

법을 규정 사항 포함

준비서류

각 영역별 평가 문서 필요

변경 후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6영역 15항목
정성평가(서술형)
구조적지표 < 과정적지표
(보육환경등) (보육과정등)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과 장단점을 반영한
영역별 서술형 평가 결과서 제공

3년

연차별 자율 품질관리 및
컨설팅 재평가

상시적 관리 사항 위주로 **최소화**

보육과정 관련 문서 위주로 **간소화**

❓ 자체평가란?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부모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보완하며 개선해가는 과정

● 자체평가 진행 과정



●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어린이집)

〈영역 1〉

평가 항목	평가내용	어린이집의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부모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놀이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는 아이들의 관심사, 놀이, 건강이나 기분 상태,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나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는 이를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나요?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전문은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안내서' 에서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자율관리(평가 사후관리)란?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을 기반으로 지속적·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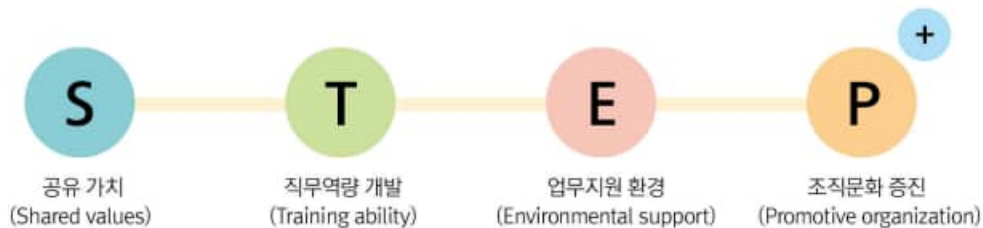
● 연차별 자율관리

대상 :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

*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

내용 :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지표와 연계한 조직역량진단(STEP+)도구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에 따라 보육의 질 관리 실천

● 조직역량진단(STEP+)



● 자율관리 컨설팅

대상 : 품질관리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내용 : 보육의 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 건강한 조직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행동 도출, 개선 필요 사항 안내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바로가기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평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의 시작,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

유보통합

- **비전** :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
- **방향** :
 - ‘영유아 최우선’ 원칙 중심,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 추진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돌봄 공백 없는 “운영시간 및 일수”

유치원 1일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일 12시간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이용시간 보장

병설)연227일
단설/사립)연235일
연평균 275일 운영

주 6일 이상
운영

충분한 에듀케어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유치원 3세)1:13~24, 4세)1:16~26, 5세)1:18~28

어린이집 0세)1:3, 1세)1:5 2세)1:7 3세)1:15 4~5세)1:20

0세) 1:3 → 1:2 목표
0~2세) 3학급당 1명 → 2학급당 1명
지원추진
3~5세) 1:12 → 평균1:8 목표

무상교육 및 보육으로, 두배되는 아이행복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시행

25년
5세



26년
4~5세



27년
3~5세

영유아(0~5세)를 위한 맞춤형 교육·보육 강화

- 2세 대상 누리과정 연계성 강화, 5세 대상 유아~초등 교육과정간 연계 강화
-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우리 아이의 정서·심리 지원
-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영유아(0~5세)를 위한 맞춤형 교육·보육 강화

통합교원자	1안) 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
신규양성	학사학위*, 대면중심 *전문대학에서도 운영 기능토록 고등교육법(50조외3) 개정 추진
현직교사 취득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 과정 운영
통합연수체계	4대분야* 중점연수, 연수시간 상향(연60시간)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행복"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출처: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권리보호 영상 교육

권리보호영상 제작 및 안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권리보호영상을 제작 후 안내

●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및 부모

● 영상안내 : 5월 ~ 12월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법령 및 대응 방안 제시 등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영상 제작 및 안내

● 영상교육 진행 방법

- 1) 어린이집 대상 - (4~12월)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 진행
- 2) 학부모 대상 - 교육수강 URL(유튜브 링크) 안내 및
각 어린이집 부모 대상 교육용으로 자율 활용



어린이집 대상 권리보호 영상 교육 일정 계획표

8월	15차	2024년 8월 8일(목) 13:30 ~ 14:10
	16차	2024년 8월 8일(목) 17:00 ~ 17:40
9월	17차	2024년 9월 5일(목) 13:30 ~ 14:10
	18차	2024년 9월 5일(목) 17:00 ~ 17:40
10월	19차	2024년 10월 17일(월) 13:30 ~ 14:10
	20차	2024년 10월 17일(월) 17:00 ~ 17:40
11월	21차	2024년 11월 7일(목) 13:30 ~ 14:10
	22차	2024년 11월 7일(목) 17:00 ~ 17:40
12월	23차	2024년 12월 5일(목) 13:30 ~ 14:10
	24차	2024년 12월 5일(목) 17:00 ~ 17:40

*자세한 일정은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생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놀이로 풀어나가는 영유아 안전교육

일상과 놀이에서 호기심을 보이는 영유아의 관심을 중심으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안전교육입니다.

- 학습 대상 : 영유아(어린이집)
- 콘텐츠 유형 : 계획안, 활동 자료, 가정연계자료
- 콘텐츠 구성



🌟 보육교직원도 함께 보는 안전교육 자료



☀️ 영유아 안전교육 놀이지원 자료

안전교육(6대안전)과 연계하여
영유아가 활동할 수 있는 놀이지원 교구



☀️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

신학기 적응기간(3월~4월)에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 및 지도방안, 응급처치 안내





☀ 내 손 안에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안내



☀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육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법



☀ 부상유형별 예방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상 유형별
예방 및 대응법



☀ 보육교직원안전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집안전사고의 이해,
실내외 안전사고 유형·예방법,
안전사고 대처법 등



☀ 보육교직원안전교육 [심화과정]

안전사고 통계분석, 관련 법령 및 정책,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방안,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생정보

현장체험 견학지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도시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하여 해양수산생태계 및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시설(체험학습관,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센터, 자연체험시설, 해안 갯벌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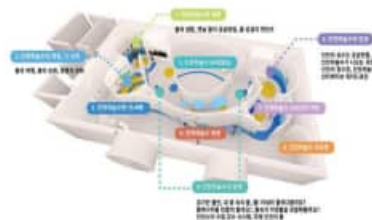
- 운영기간 : 2024.04 ~ 2024.10
- 운영시간 : 월~금, (토, 일, 공휴일은 휴관) 10:00 ~ 16:00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10인 이상 관람 가능)
- 신청인원 : 10인 이상 ~ 100인 이내
- 문의전화 : 032-440-6428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47번길 313
- 체험내용 : 체험학습시설(체험학습관,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센터, 자연체험시설, 해안 갯벌체험 등)을 운영
- 신청사이트 : <https://www.incheon.go.kr/fish/index>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하늘수 홍보관)

인천하늘수 홍보관에서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물의 순환 등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하며, 체험을 통해 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연중(1~12월)
- 운영시간 : 월~금, (토, 일, 공휴일은 휴관) 09:00 ~ 17:00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 신청인원 : 최대 30명
- 문의전화 : 032-720-2660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6(장수동668)
- 체험내용 : 체험학습시설(인천하늘수의 여정, 인천하늘수의 착륙, 인천하늘수의 유영, 인천하늘수 VR체험실, 인천하늘수의 탄생 등)
- 신청사이트 : <https://www.incheon.go.kr/water/index>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4월~11월 10:00 ~ 17:00
월요일 휴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문의전화 : 032)560-9940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드림파크 야생화공원
- 홈페이지 : <http://www.dreamparkcf.com/>



인천수목원 유아숲교육



- 운영기간 : 3월 ~ 11월
- 운영시간 : 월~금, (토, 일, 공휴일은 휴관) 10:00 ~ 12:00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 신청인원 : 최소 5명, 최대 23명
- 문의전화 : 032-439-8880
- 위 치 :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내
- 체험내용 : 숲체험, 생태체험 프로그램
- 신청사이트 : http://waldedu.co.kr/03_sub/page3_4.php



인천광역시 관내 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인천남동소방서는 안전을 시작하고 기억하는 공간인 미취학아동 특성화로 인천광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119소방안전체험 견학을 실시합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시간 : 주 1회 오전 (10:00~11:00) / 오후 (14:00~15:00)
-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아동 만 5세 이상
- 신청인원 : 20인 이상 ~ 30인 이내
- 문의전화 : 032)870-5258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 남동소방서
- 체험내용 : 가상화재 대피 훈련, 물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
- 신청사이트 : <https://www.incheon.go.kr/res/index>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육윤리를 실천했던 경험을 담은 보육 에피소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함께하는 보육이야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16작품을 게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참여해주신 모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수상작 ★

최우수상 TMI 강선생님

우수상 30과 50사이

우수상 나는 참 행복한 교사입니다.

우수상 Scar into star!(상처가 별이 되다)

장려상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점심

장려상 Give love! 사랑을 주세요!

장려상 교사 반성문(부제:나 잘난 줄 알았지)

장려상 엄마! 엄마!

장려상 내가 너를 지켜줄게!

장려상 엄마가 된 보육교사

장려상 가꿈 아이야

장려상 내가 사랑하는 너는

장려상 물음표 하나

장려상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장려상 너를 응원할게

장려상 슬기로운 교사생활



TMI 강선생님!

살롱에덴어린이집 강진유

나는 30대 후반 2009년 작은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입사하며 보육인의 첫발을 디뎠다. 16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보직으로 일하고 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추억을 자극하는 빈티지 포스터,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B급 감성을 자극하는 머리 모양과 의상들 그리고 어릴 적 나의 모습이 라고나 할까? 초등학교 교과서 첫 표지에 등장할 법한 순수한 삽화들을 보면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크리스티앙 디오르도 빈티지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광고를 만든 감독의 나이가 궁금했다. 감성은 시대와 같이 표현되는데 감독은 나랑 비슷한 연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라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은 내 둘째 아들보다도 어린 동료들이 많다. 입사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30대가 되었다. 16년 근무하는 동안 나보다 나이 많은 교사는 거의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원장님보다도 나이가 많고 현재 동료 교사들은 평균 20살이 어리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나의 직장 동료이다. 그러다 보니 세대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 엄마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챙기다 보면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과한 애정이 흘러넘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이야기들 즉, 요즘 말로 TMI가 돼 버린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보육 현장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인데 요즘 MZ 세대 교사들은 꼭 필요한 말만 듣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 고민이 생긴다. 사실 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해 깊은 동료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의 경험을 항상 업무에 건주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라떼"라는 스타일로 받아들여지는 듯했다. 그러다 보니 젊은 교사들은 나와 알게 모르게 소통도 줄어들고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어린이집 일은 보육에 대한 사소한 정보라도 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 특수한 일이다. 원아들에게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사들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중 제3장 동료에 관한 윤리에서 교직원으로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 자원을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공감하며 특히 신입 교사들이 어려움 없이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어린이집의 크고 작은 규칙들을 알려주고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내 자식이 직장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에 더 두루려고 애를 썼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신입 교사나 동료 교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감사한 일로 여겨지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예를 든다면 꼼꼼한 업무적 조언, 그리고 필요 물품 챙겨주기, 행정업무의 과도한 안내 등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먼저 나서서 알려 주는 식이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나의 이런 성품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는데 최근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여러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록 내 자녀일지

라도 과도한 친절과 배려를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와 연배가 비슷한 주방 조리원님과만 대화하는 나를 보았다. 요즘 세대들은 정말 지혜롭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찾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통해 쉽게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과도한 조언은 그들에게 있어서 TMI 일 뿐 공감이라든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나의 친절과 배려는 대화를 원치 않는 젊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어쩌면 직장 동료로서 과도한 친절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를 더 선호했다. 얼마 전 내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까칠하게 반문하는 교사도 있었다. 아마도 그 선생님은 길어지는 나와 대화에 부담스러워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사실 나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다 보니 시간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충격은 적지 않았고 마음이 위축되어 많이 힘이 들었다. 이 일 이후로 나도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며 오지랖 넓은 나의 치마폭을 거둬들이기로 마음먹고 여지간한 일들에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딱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의 TMI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생님이 퇴직하게 되던 날 나를 만나 주면서, 먼저 "선생님, 그동안 예의 없게 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진심은 잘 알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나는 오늘도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내가 챙겨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핀다. 아주 과도하게 수다스럽게 TMI를 하지 않아도 무심한 척하지만, 관심을 가지는 "존데레(무심할 잘 챙기는 따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신세대 용어)"의 마음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16년 차 교사로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육 현장에서 갈등이나 견해를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해결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동료로서 MZ세대 교사들과도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제보다는 덜 TMI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고 눈치껏 도와주는 세련된 TMI교사로, 따뜻한 엄마 같고 이모 같으며 언니 같은 동료 교사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





30과 50사이

부개1동꿈터 어린이집 이 성 욱

사전에 원장님께서 면담 요청이 들어와 신입 원아 추가 입소로 새로운 교사 채용 이야기를 공지해 주었다. 혼자보다 둘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었다.

다른 반 선생님이 “샘, 샘 짝궁으로 서른 살 선생님이 오신대요.”라고 말하며 나는 “예뻐? 서른 살? 나 괜찮을까? 완전 이모뎀이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원장님께서 “서로 도우며 잘 지낼 수 있어요.”하고 격려해 주셨다. 첫날 “함께 근무할 ○○선생님이예요. 여기는 이성욱 선생님”하고 소개해 주시며 원장님께서 우리 둘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파이팅해 주셨다. 신입 선생님이 먼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주어 좋았다. 첫 근무 날 낮잠 시간에 교실을 둘러보던 짝궁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교실 좀 꾸며도 될까요?”하고 웃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순간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젊은 감각이라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선생님, 이걸 어떻게요?”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교실 환경을 꾸밀 도안을 보여주었다. 짝궁 선생님이 보여준 것은 자동차 도안에 아이들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는데 언제 아이들 사진을 찾아 합성까지 했는지 아주 빠른 속도로 컴퓨터 처리를 하는 모습에 놀랐다. 자료를 뽑은 짝궁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리는 것은 제가 할게요”하고 말을 걸 어보니 “어 감사합니다. 제가 꼼꼼히 오리는 것은 잘 못해요” 하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에 말 생각이 나 “저는 예쁘게 꾸미는 것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젊은 짝궁 선생님에게 많이 배워야겠네요” 하니 “아니예요, 선생님도 잘하세요”하고 이야기를 해주며 최고 표시를 해주었고, 짝궁 선생님과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근무하며 나는 그동안 사물함에 옷이나 가방을 각 맞춘 것처럼 정리하였는데, 짝궁 선생님은 나와 반대였다. 짝궁 선생님이 정리 해놓은 가방이나 옷가지를 다시 꺼내 정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다시 정리해 놓으면 느끼는 것이 있겠지’하는 마음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서로 다른 정리 스타일로 마음을 끓이는 날이 많아졌다. 서로 성향이 다른 문제라 뭐라고 못하고 불만이 쌓여갔다. 짝궁 선생님이 본인이 정리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과 이야기를 시도해 보았다.

고충 상담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선생님처럼 나랑 정리 스타일이 좀 다른 거 같아요”하고 먼저 말해보니 “저도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는 거 봤어요”라고 본인도 고민 중이었다고 하여 나는 “서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하니 짝궁 선생님이 “맞아요”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해하시던 원장님께서 오셔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 좋아요, 서로 잘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하고 의견을 주셨다. 나는 “원장님 말씀처럼 정리 쪽은 제가 맡고 선생님은 서류나 교실 꾸미기를 좀 더 주도적으로 맡으시면 어떨까요?” 하니 짝궁 선생님이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하였다. “그러면 정리할 때 양말을 가방이

나 옷 중 어디에 넣는 것이 편하세요?”

“가방 앞주머니요” 하였다. 나는 웃으며 “전 옷에다 넣었는데 그동안 불편했겠어요, 서로 미리 소통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네요. 내가 먼저 미안해요” 하며 손을 잡아주자 웃었다. 서로 마음을 풀게 되었다. 졸업을 맞이하여 앨범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원장님께서 “앨범 들은 그림 ○○선생님이 디자인하시고 성욱선생님은 사진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하고 제안을 해 주셨다. 솔직히 앨범 들을 디자인하기 어려웠던 나와 이제 신입 입장에서 아이들 사진을 작업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짝궁 선생님과 같이 “네”하고 대답하며 마주 보고 웃었다. 짝궁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하고 저랑 잘 맞는 거 같아요” 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맞아요” 하며 같이 손을 잡았다.

몇 달이 지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짝궁 선생님은 사진 디자인을 나는 환경 정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선생님 이거 컴퓨터 작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네, 이렇게 윈도우키랑 따옴표 키를 누르면 더 편해요, 더 빨라요” 하고 알려줘서 알게 되고, 짝궁 선생님이 “선생님, 저 전화 상담은 부담인데” 하며 내가 “전화상담은 제가 할게요” 서로 빈구석을 찾아 맞춰나가며 서로 도와가며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다양한 손 유희를 알고 있는 짝궁 선생님이 율동과 함께 놀이하면 나는 동화구연을 하며 책을 읽어주었다. 내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살려 영아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살피면, 짝궁 선생님은 요즘 영아들이 좋아하는 티니핑과 같은 캐릭터에 대해 알려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채워나가며 보육하였다.

20살 차이라는 짝궁의 등장은 처음 나에게 새로운 긴장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30살과 50살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배움 가득한 동료애로 채워졌다.





나는 참 행복한 교사입니다.

새희망어린이집 권혜수

나는 '눈'이 큰 교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을 한눈에 담아
눈동자에 비치는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합니다.

나는 '귀'가 큰 교사입니다.
왁자지껄, 우물쭈물 어떠한 소리도 귀담아
호기심도 귀여운 발상도 모든 것을 들어주어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손'이 큰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담아
항상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웃음'이 큰 교사입니다.
눈을 마주치며 교사에게 전하는 웃음을 담아
아이들과 하하 호호 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마음'이 작은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전해주는 마음을 담아
마음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나는 '마음'이 큰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늘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부풀려 나눠주었습니다.
더 부풀어진 '사랑'을 되돌려 받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교사'입니다.





Scar into star! (상처가 별이 되다)

인한삼성어린이집 김소연

평소와 다름없이 여느 때처럼 하하호호 재잘대며 놀이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평온한 어느 날이었다. “규민아, 기저귀 갈까?”라는 말에 규민이는 장난기 가득한 눈웃음을 지으며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 가다 갑자기 철컹 소리와 함께 교구장 안에 있는 블록에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진 규민이를 일으키며 얼굴을 살펴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규민이의 눈두덩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즉시 응급처치를 하였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모님께 연락드려 사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규민이를 안심시키며 응급처치하는 동안 아버님께서 어린이집에 도착하셨다. 규민이의 안전사고에 걱정되고 놀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상처가 크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가도 되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자는 원장님과 나의 여러 번의 제언에도 “병원은 혼자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바쁘실 텐데 다른 친구들 돌봐주세요. 진료 후에 어린이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어린이집의 상황을 배려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큰 병원으로 이동하기를 말씀드렸고 아버님께서 어린이집 인근의 대학 병원으로 출발하셨다.

나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이동한 규민이가 계속 걱정되어 아버님의 연락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 아버님으로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고 규민이의 상처를 봉합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나 또한 교사이기 이전에 세 아이의 엄마이자 부모로서 다친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기에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규민이가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이런저런 생각들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다행히 CT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다행인지...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집에서도 갓 태어난 돌짜를 돌보며 걱정하고 계실 규민이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다. 울먹이며 말하는 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시고 어머니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뭐다 넘어진 건데... 오히려 저희가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규민이는 괜찮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후 “그런데 선생님,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린 동생이 있어요.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린이집에 가도 될까요?”라고 조심히 물으셨다. 아이가 다쳐 많이 속상하실텐데 오히려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해 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난 규민이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볼 테니 내일부터 등원하라고 말씀드렸다. 집에 가서도 밤새 규민이가 아프서 잘 못 자면 어찌하나, 자다가 만져서 상처가 벌어지면 어찌하나 이런저런 생각들로 걱정이 되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날이 되었다. 환하게 웃으며 보육실에 들어오는 규민이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이가 아프서 많이 힘들어할까 걱정되었는데 규민이는 언제 다쳤냐는 듯이 해맑은 얼굴로 나를 안아주었다. 규민이의 따뜻한 포옹에 울컥 눈물이 났고 어머니와 나는 붉게 물든 눈시울을 서로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어제의 안전사고로 느꼈던 규민이에 대한 걱정과 평소와 다름없는 규민이의 모습에 안도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규민이가 다친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의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오히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쳐서 괜히 선생님들 신경 쓰게 해 드려서 죄송해요. 어린 동생이 있어 제가 보기가 어려워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격려 말들이 내게 힘이 되었고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나는 2012년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최근 교권이 무너지면서 일명 ‘갑질 부모’, ‘교권 보호’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간혹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다. 힘들 텐데 그동안 어떻게 보육교사를 오래 할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들과 놀이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내가 만난 학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셨다고 말이다. 교사도 사람이기에 간혹 실수할 때도 있고 규민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속상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옆에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내가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나 또한 교사이면서 세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다면 상처 또한 또 하나의 별이 되어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더 환하게 비추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규민이의 부모님께 다시 한번 더 전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점심

공항공나무 제1어린이집 김지영



어린이집 피크닉데이~

생일이 있는 달 부모님과 원에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함께 먹는 날. 며칠 전부터 몇 밤 자야 피크닉이나며 손꼽아 기다리던 하윤이는 아침부터 아주 뜰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윤이 점심시간에 맞춰 아빠랑 함께 도착해서 어린이집 도서관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고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원했지요. 하윤이는 더 있다가 와도 되지만~^^::

엄빠를 그냥 보내줄 리 없으니~ 함께 하원했어요. 놀자, 우리~
- 하윤이 어머니의 블로그 '쏘잉노리'중에서

햇살 좋은 6월의 어느 목요일, 웃는 모습이 해님처럼 눈부신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라며 눈을 찡긐거렸다. "글쎄, 무슨 날일까?"라고 물어보니 "오늘 피크닉데이라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집에 온대요."라며 하윤이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 담겨있었다. 피크닉데이는 원아가 생일인 달에 하루를 신청하여 해당 날짜에 원에서 준비한 급식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 부속실 혹은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는 특별한 날이다.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 현장을 부모 등 가족의 보호자가 함께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부모 상호 간의 신뢰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하윤이는 버스에서 내려 나뭇가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애들아, 나 오늘 피크닉데이야."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어느새 꽃잎만 친구들이 하윤이 앞에 덩글덩글 모여 "생일 축하해."라며 마음을 담아 축하해주었다. 교실 안이 생일 축하의 말들로 팡팡 튀겨져 부풀어 올라서 행복함으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 마법같이 느껴졌었던 팝콘처럼.

그릇에 하윤이가 좋아하는 딸기와 빵 놀릿감을 올려두고 친구와 소꿉 놀이하다가 문득. 선생님과 하트모양 종이에 스티커를 붙이다가 문득. 유취실 실내 놀이터에서 축구공을 쫓아 달리다가 문득. 벽시계를 쳐다보고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라며 거듭거듭 물어보았다. 피크닉데이를 기다리는 하윤이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 솜사탕만큼 부풀었을 때, 인

터폰이 울리고 엄마 아빠가 교실 앞으로 도착하였다. 하윤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엄마 아빠에게 안겼다. 오늘의 급식 메뉴인 한입 떡갈비, 하와이안 볶음밥, 브로콜리 속회와 양념장, 깍두기가 담긴 삼단 찬할 도시는 하윤이 아버지 손에, 하윤이의 작고 귀여운 양손은 하윤이 어머니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실외 놀이터로 향하였다. 실외 놀이터에 있는 정자 위에서 도시락을 열어 반찬을 확인한 하윤이는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파인애플 들어 있는 볶음밥!" 이라며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이것도 먹어봐."라며 한입 떡갈비를 젓가락으로 집어 엄마 입에 넣어 주었다. "맛있지? 우리 조리사님 진짜 요리 잘하지? 지난번에 먹었는데 오늘도 나와서 정말 좋아!"라며 아기 새처럼 쉴 새 없이 흥얼거렸다. 그런 하윤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빠가 "어?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있어?"라며 브로콜리를 가리켰다. "그럼. 나 이거 잘 먹어! 우리 선생님이 브로콜리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얼굴도 반짝반짝 해진대요."라며 브로콜리를 집어 한입에 쏙 넣었다. "오! 엄마가 잘 몰랐네. 우리 하윤이 채소도 잘 먹는구나. 집에서 엄마가 많이 해줄게."라며 하윤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었다. 매일 친구와 함께 뛰놀놀았던 놀이터에 하윤이네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해져 붉은 깨만금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전해졌다.

더할 나위 없는 오늘, 일 년에 단 하루뿐인 피크닉데이는 하윤이에게 어떤 추억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하윤이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까.

다음 날, 하윤이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처음 피크닉데이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이 평소 먹는 음식을 함께 먹어보니 더 믿음이 생겼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점심을 먹어서 하윤이가 너무 좋아해서 덩달아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다. 아이 생일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시며 하윤이가 또 엄마 아빠랑 어린이집에서 밥 먹고 싶어 해서 내년 생일에도 꼭 피크닉데이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다. 통화를 끝내고 퇴근하는 나의 발걸음이 행복함으로 물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자꾸자꾸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나에게도 특별한 선물이었을까.



Give love! 사랑을 주세요!



공항공무원 제2어린이집 김안진

“이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영아의 기존 담임선생님께 원아 특이 사항을 전달받고 처음 스친 생각이었다. 전달 사항에는 “영아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이름만 불러도 크게 소리 지르며 울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어느 날 나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우연히 복도에서 영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줄무늬 옷을 입고 바가지 머리를 한 영아를 처음 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 영아는 처음 본 나를 향해 달려와서 눈을 맞추며 방긋 웃어주었다. 영아의 사랑스러운 그 미소는 마치 “우리가 함께할 일 년은 분명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영아는 신학기 첫날부터 또래의 놀잇감을 빼앗고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OO이도 이 놀잇감으로 놀이하고 싶었구나. 여기 똑같은 놀잇감이 있네? 이걸로 놀이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똑같은 놀잇감을 건네주는 순간, 영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교실 내에 비치된 바구니에 담긴 모든 놀잇감을 뒤집어엎고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영아의 속상한 감정을 읽어주고 안아주며 함께 손을 잡고 쏟은 놀잇감을 정리했다.

식사 시간에는 “OO야 맛이 어때? 옆에 있는 김치도 아삭아삭 맛있는 데 한 번 먹어 보는 건 어때?” 하고 한 차례 권하였지만 그대로 포크를 던지는 바람에 내 손등에는 상처가 나버렸다.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되는 행동임을 알려주었다. 그때 영아는 또다시 손가락을 던지려고 시도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라는 문구가 생각나며 내가 맡게 된 영아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랑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영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면 거울처럼 똑같이 모방해 보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소한 놀이 행동도 따라 하곤 했다. 상어를 손에 쥐고 바닥에 쿵쿵 세 번 두드리면 나도 상어를 손에 쥐고 쿵쿵 바닥을 두드렸다. 영아가 입술을 꼭 내미는 표정을 지으면 나도 영아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표정을 지었다. 두 팔을 하늘 위로 흔들면 나도 힘차게 흔들어 보았으며 영아가 “아가? 우유?” 하고 말하면 나도 영아와 같은 말투로 “아가? 우유?” 하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나의 모습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영아였지만 계속해서 거울처럼 따라 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의아해하다가 결국에는 호기심을 보이며 미소 지었다. 또한 일과 중 영아를 자세하게 관찰하니 계속해서 같은 음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하원 시 어머니께 여쭙보니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에서 듣는 동요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퇴근 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라고, 검색한 뒤 많은 동요를 들어보았다. 영아가 흥얼거리는 동요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함께 불러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동요를 발견하고는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참 기뻐다. 당장 출근하여 “OO야! 내가 이 노래 찾았어!” 하고

같이 부르고 싶었다. 다음 날이 되어 영아가 노래를 흥얼거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영아가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나는 큰 목소리로 “요이요 이호! 요이요이해!” 하고 가사를 덧붙여서 함께 불렀다. 그 순간 영아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움직이는 내 입술을 살피다가 이내 활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선생님~ 선생님도 이 노래 좋아해요? 나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는 말처럼 다가왔다. 나는 계속해서 영아의 마음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흥시로 오감 놀이가 진행되었다. 몸에 무언가 묻거나 어색한 촉감을 매우 불편해하는 영아를 위해 어떻게 놀이해 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손에 묻지 않을만한 큰 주방 도구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에서 거품기와 채반을 찾아서 원으로 가져갔다. 껌질을 벗겨낸 흥시를 채반에 담고 그 아래 바구니를 받친 뒤 영아와 함께 거품기로 빙글빙글 돌리고 으깨보며 아래쪽으로 흐르르 떨어지는 흥시를 탐색해 보았다. 그러다 흥시가 살짝 손에 묻자 이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에 나는 바로 나의 손등에 묻은 흥시를 맛보며 정말 달콤하다고 말하였고 영아도 내 반응을 살피며 자기 손에 묻은 흥시를 아주 천천히 맛보기 시작하였다. 생각보다 맛있었는지 한 번 더 맛보다가 흥시를 들어서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손바닥을 모두 펼쳐서 흥시를 만져보고 마음껏 주물러보았다. 오감 놀이를 할 때마다 항상 거부하며 늘 휴식 매트에서 또래들이 놀이하는 모습만 바라보던 영아였는데, 신나게 오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뭉클한 감정이 양떼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밀려왔다. 영아는 낮잠 시간에 깊게 잠 들어서 오후 간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잠에서 깨기 힘들어한다. 어느 날은 바깥 놀이 시간에 강아지풀로 놀이하다가 우연히 영아의 손등을 간지럽혀주었는데 너무나 즐거워하였다.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에 강아지풀을 그대로 교실에 가져가서 낮잠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낮잠 시간이 끝났을 때 나는 강아지풀로 영아의 손등을 살짝 간지럽혀주었다. ‘혹시나 불편하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전에 영아는 크게 소리 내어 웃으며 그 어느 때 보다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영아를 꼭 안아주며 잘 잤는지 물어보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 영아는 놀잇감을 거의 던지지 않는다. 가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 또한 새로운 놀이에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익숙하지 않은 감각 또한 흥미롭게 탐색한다. 또래에게 관심 없던 영아가 이제는 빗으로 또래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애정을 표현한다. 그뿐만 아니라 놀이 도중 나에게 다가와 내 볼에 입 맞추고 눈을 바라보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제1장 영 유아에 대한 윤리 중의 하나이다. 영아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손길 중의 하나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아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주고 깊이 공감해 줄 수 있음이 감사하다. 정말이지 나는 행복한 교사이다.



교사 반성문 (부제: 나 잘난 줄 알았지)

국공립아라모아숲어린이집 문주영

나 잘난 줄 알았지

꽃인 줄 모르고

나 잘난 줄 알았지

활짝 피어날 줄 모르고

나 잘난 줄 알았지

나를 키워 나가게 하는 줄 모르고

나 잘난 줄 알았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되어 피어준 너

평등하게,

귀 기울이며,

존중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너

나 잘난 줄 알았더니

네 덕분에 내가 선생님이 되었구나





엄마! 엄마!

국공립에스케이뷰센트럴어린이집 이하나

엄마! 엄마!
손으로 밥을 가리키며 바라보는 눈
배가 고프구나~
선생님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엄마! 엄마!
눈을 깜빡깜빡~ 피곤해하는 눈
잠이 와 힘들구나~
선생님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엄마! 엄마!
교실 문 쪽으로 가 살짝 앉으며 바라보는 눈
응가를 했구나~
선생님은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엄마! 엄마! 부르는 너희들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이 언제나 곁에서 도와줄게

엄마! 엄마! 부르는 너희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천천히 기다려 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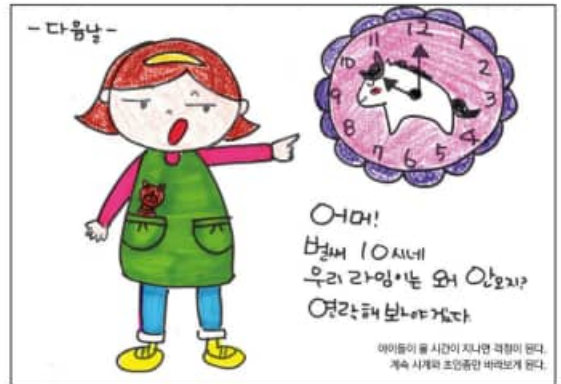
엄마! 엄마! 부르는 너희들
언젠간, 선생님! 하는 날이 올 테니 괜찮아~
선생님이 항상 함께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국공립프라임유아놀이집 유 정 희





엄마가 된 보육교사

꼬마술어린이집 이유리

첫 아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아이와 함께 복직했을 때, 이전과는 많이 다른 시선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부모님들의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했던 요청들도 이제는 이해가 가게 되었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 소중한 느낌이었다.

직장동료였던 교사가 내 아이의 첫 선생님이 되었고, 나는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었다. 나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연령의 아이들과 지내며, 외부 활동 시간, 점심시간, 낮잠 시간 등 활동 시간마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아이를 떠올리곤 했다. 내 아이가 있는 교실 앞을 지날 때면 혹시나 아이가 나를 보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고 보채거나 더 힘들어할까 봐 항상 창문 밑으로 허리 숙여 지나다니고 그렇게 지나다나다 행여, 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왜 우는지, 오래 운 건 아닌지, 속상하고 궁금한 마음도 너무 컸다. 처음엔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이 쓰였다. 아이가 좋아하는 식단이 제공될 때면 오늘 밥은 잘 먹은 건지, 양치는 잘 하고 낮잠은 편히 자는지.. 그러면서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건 선생님의 시선이 따뜻한 시선인지..였다.

나도 담임교사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아이들과 하루일과를 지내다 보면 순조로운 날도 많지만, 각자의 개성들이 강한 아이들이 모여 에너지를 마음껏 표출하다 보면 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 그럴 때, 교사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아이도 있다. 나는 내 아이가,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후자의 아이기를 바라면서, 오래 본 그 동료 교사의 눈치를 한껏 살피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놀이하듯 같은 반 아이에게 물렸고 그런 일이 이주 사이에 세 번 반복이 되고, 넘어져 다치거나 했을 때도, 너무 화가 났지만, 행여 내가 화를 내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어 그저 괜찮다고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며 쿡한 척을 하고, 뒤에선 많이 아파 울었을 상황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내 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 상황에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는지 의구심

도 들었다. 그렇게 지내다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연차를 쓴 날, 아이가 자신의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 등원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겨우겨우 떼어놓고 돌아선 날에 그 교실 앞에 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아차 싶었다. 선생님의 부재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선생님의 존재가 감사함을 느끼며, 그동안 오래 함께 지내왔던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한때는 나와 투담임으로 한 교실에서 근무도 했던 교사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해주는 모습에 '나도 배워야지' 하면서 다음에 아이를 맡으면 꼭 말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엄마의 마음이라고 이해받기엔 웅졸한 모습이였다. 교사로 지내면서 학부모와는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담임교사를 믿지 못하고,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이해하는척, 괜찮은 척하며 그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다.

다음날, 선생님을 보고 반갑게 안기며 등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 선생님께 너무 죄송했다. 팔 년 가까이 같이 근무하고도, 엄마의 욕심에, 누구보다 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사랑을 주는 동료 교사임을 잠시 잊었었다..

선생님은, 이번 년도 2월을 마지막으로 오랜 교사생활을 퇴직하셨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너무너무 감사했고, 죄송했고 또 감사하다며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날까 피했지만, 그래도 뭉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집에 가서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었음에 그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바탕이 되었을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다짐했다. 나도 다른 아이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선생님처럼, 나도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선생님 정말 좋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남겠다고..





까꿍 아이야

윤서한내들어린이집 김태연

아이야 까꿍
혼자서 기우뚱 기우뚱
응원하며 더하기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엄마 찾아 호시탐탐
살랑살랑 다가가서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두 팔 벌려 나팔꽃처럼 웃으면
아이에게 눈 맞추고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손을 잡고 아장 아장
그림 빛이 되어 주어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책이랑 이야기하면
신나라 꿈꾸는 아이가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남남 즐거운 소리
배부른 고래처럼 미소가
까꿍 하지요

아이야 까꿍
눈이 간질간질 입이 하마가 되면
작은 새가 포로로 노래를
까까~~꿍 까~~꿍





내가 사랑하는 너는

으뜸에듀센터어린이집 김미로

머루처럼 까맣고 맑은 너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나는 어느새 너의 손을 잡고
작고 예쁜 오솔길을 산책하는 것 같아

너의 웃음소리 같은 작은 냇물이 흐르고
너의 입술 같은 연분홍 진달래꽃이 가득하고
너의 손짓 같은 바람이 내 볼을 간지럽히는
봄 같은 너를 느끼곤 해

동글동글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줄 땐
가슴안에서 작은 물보라가 일어나
나는 어느새 너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모래사장 위에 서서 파란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너의 작은 손에 달빛 같은 따뜻함을 주고파
너의 작은 귀에 세상 아름다운 말을 담아 주고파
너의 작은 가슴에 빛나는 별을 달아 주고파

내가 사랑하는 너
모두가 사랑하는 너





물음표 하나

주안파크자이어린이집 이혜진

“오늘 기분은 어때?”
 “잠은 잘 자고 왔어?”
 “우리 오늘은 뭐하고 놀까?”
 선생님 말에 담긴 물음표 하나,
 내 마음을 두드려요

“선생님이 도와줘도 되니?”
 “선생님도 같이 놀아도 될까?”
 선생님 말에 담긴 물음표 하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오늘 어떤 놀이가 가장 즐거웠니?”
 “내일은 우리 뭐하고 놀까?”
 선생님 말에 담긴 물음표 하나,
 내 마음에 기대가 가득차요

선생님 말에 담긴 물음표 하나,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마음이라요

선생님 말에 담긴 물음표 하나,
 나도 친구에게 써요
 “친구야, 우리 같이 놀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국공립 청천1동 어린이집 이은영

김 선생님과 내가 알고 지낸 지는 벌써 11년째~
10년을 넘게 한 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드문 일이 아닐
까? 30대를 지나 40의 중반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는 내가 장애 통합 교사, 김 선생님이 일반 담임이었다.
일반 교사와 장애 통합 교사~ 지금도 참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다~ 한
명이 수업하면, 한 명은 도움을 주고, 한 명이 앞서 가면, 한 명은 뒤에
서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지 않으면 교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아
이들을 관리 할 때에도 일반 아동 17명, 통합 아동 3명,, 숫자로만 보면
웬지 통합담임은 일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모를 아리송함
이 있다.

연애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식습관, 정리 습관 그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맞춰 가며 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하물며 김 선생님과 나는 남이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9시간을 근무하며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할
때에는 진정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이해하고 배려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런데 나도 김 선생님도 낯가림을 하는 편이라 서로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나는 우리 원에 오래 있었고, 김 선생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부모님도 내가 더 많이 알고, 김 선생님은 처음 만
나는 학부모님도 계셨다.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그 날도..

내가 일반 학부모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는 김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 주기도 어렵고, 나 역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데 사
과해야 하는 거야?" "학부모님과 내가 알고 지낸 시간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걸로 속상해할 일인가? 하는 생각에.. 잠깐의 냉전 시
간이 있었다. 그러나 퇴근 전에는 해결하고 싶었다. 그 상황을 그렇게
둘 수 없었고,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갈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
적인 마음을 갖고 싶었다. 선생님께 다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잘 지내보자고 부둥켜 안으며 울었던 그 날.. 그 때가 벌써
십수 년이다. ㅎ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고 어렸던 짧은 생각의 연속들..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풀었기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거침 없이 일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다.
밤을 새며 준비했던 몇 번의 평가 인증, 재워탁 심사,
부모 참여 수업, 우리 어린이집의 최대 관심사였던 여러 번의 이사 등등
그 어려운 일들을 서로 같이 해나갔다.

우리끼리 이야기한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많이 본 사이 아닌가?"
"아침에 만나 저녁에 해질 때까지 2끼 이상을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정말 부부 같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아마 우리 내 타입과 나의 마음들을 더 많이 알고있을 것
같아요?"라며 우리는 서로 부부처럼 지낸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내가 일반담임, 김 선생님이 장애 통합 교사가 되
었다. 우리 어린이집은 서로 역할을 바꿔 가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선생님은 말한다. "장애 통합 교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그때는 괜히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나만 일을 많이 하
는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많이 도움께요"라고 말한
다.

나도 대답한다. "나도 오랜만에 일반 담임 하니깐, 선생님 마음 알아요
그때 나도 너무 지혜롭지 못했지요 뭐, 그때 그런일이 있었니까 지금 우
리가 있지 않을까요?" ㅎㅎ

"맞아 맞아" 하며 또 한바탕 웃는다.

지금은 원감과 주임으로 최고의 조합을 자랑한다.

행사, 아이들 관리, 교사 관리, 어린이집 공문처리 등 막힘없이 척척 처
리한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사이, 서로 힘들 때 돕는 사이
오늘 아침엔 출근길에 커피를 사 간다.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메뉴를
말한다.

"따뜻한 바닐라 라떼 2잔 주세요"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선생님과 인사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커피 드세요. 출근길에 사 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드시면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알았대, 나 오늘 달콤한
게 먹고 싶었는데 ㅎㅎ"

"그럼 당연히 알지요,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도 오늘 달콤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내가 먹고 싶으면 선생님도 먹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죠!"

2024년도 역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니까~~^^





너를 응원할게.

국공립해당어린이집 이 하 늘

우리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저 또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반에서 일반 반 교사로 함께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보아도 여전히 저는 통합반을 맡을 정도로 많은 지식이 없고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해마다 반 배정 때,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통합반은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통합반을 맡지 않아도 우리 반은 통합반과 함께하는 반이었기에, 늘 통합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점은 통합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사랑도 많고 웃음도 많은 아이들이었죠.

그렇게 통합반을 함께 한지 3번째 가을로 접어들던 날.. 원장님이 나를 급히 부르셨어요.

“선생님, 통합 아이를 봐줄 수 있어?”

다른 원에서 일반반에서 있던 유아였는데 적응이 너무 어려워 수소문하시다 우리 원까지 오게 된 아이였습니다.

“네? 제가요? 통합반 선생님 잘못 부르신 게 아닌가요?”

“아이가 많이 순하고 괜찮대, 일단 7세고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봐줄 수 없을까?”

원장님의 부탁에 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없이 고민을 하고 있자 일단은 내일 오기로 했으니 먼저 만나보고 선생님의 의견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그 아이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순한 아이였고

인사를 하며, 나는 몇 살이고 이름도 말하며 친구들에게 다가오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 문을 가리키며 “엄마 나가! 나가라고!” 하며 소리를 치는 아이를 보고 우리 반 아이들은 일제히 모두 조용해졌다.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또래들에 비해 키가 크고 여자들만 많던 우리 반에 남자아이가 들어오니 다들 놀라긴 했던 모양이었다.

아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들어주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설명하니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나에게 문을 가리키며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보조 선생님과 통합 선생님께 우리 반 아이들을 부탁드리고 잠시 공동 놀이실로 나가보았다. 아이는 공동 놀이실에서 해맑게 웃으며 미끄럼틀도 타고 암벽을 오르는 등 너무나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런 모습도 잠시 다른 선생님들이 지나가고 늦

선 어른들이 보일 때마다 아이는 잠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윽고 공동 놀이실 내 미끄럼틀 밑으로 숨어버렸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나도 함께 누웠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활짝 뜨고 나를 보며 “보지 마, 저리가” 하였다. 아이의 말에 같이 있고 싶다고 하니 “그럼 볼 꺼” 하며 공동 놀이실의 전등을 가르켰다. 교사가 불을 끄고 나니 유아가 눈을 다시 뜨고 씨익 웃었다. 그렇게 아이와의 첫 만남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 역시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고 아이 역시 순하고 좋았지만 난 우리 반 아이들을 케어하고 우리 반 통합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벅차서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렸다. 알겠다고 대답하시고 돌아선 순간 내 마음에 계속 그 아이가 맴돌았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되는걸까. 그 아이는 원래 있던 원으로 가게 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나는 원장님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다.

“원장님, 제가 그 아이 맡아볼게요.”

원장님은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부모님 역시 내가 혹시나 아이들을 보며 케어하기 힘든 통합 아이를 만나 힘들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까짓거 6개월인데, 뭐 일단 있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된 그 아이와의 하루하루, 원장님께서 케어하기 어려운 아이를 위해 누리 보조 교사도 추가로 채용해 주셨고, 그 보조교사와 함께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다양한 놀이를 지원해 주었다.

다행히 누리 보조선생님 역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셨고, 가정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이 아이도 원에 적응을 너무나 잘했다. 어머니께서 “맨날 해당어린이집을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주말에도 언제 가냐고 할 정도로요” 하고 말씀해 주셨다. 알고 보니 이전 어린이집은 4살 때부터 다녔는데 7세까지 다니며 가기 싫다는 말만 했고 가고 싶다고 말한 게 처음이라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 졸업식에서 추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읽는데 내내 나는 그 아이와 우리 반 아이들의 짧지만 행복했던 놀이들이 떠올랐다. 우리반 아이들도 그 아이를 위해 배려해주기도 하고 그 아이 역시 우리와 함께하려고 친구들 이름을 외워 오고 이름을 조금씩 불러보는 모습을 보였다.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함께 노력하고 어머니 역시 아이가 혹시나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을까 기본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지도를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나도 통합반을 맡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너를 짧지만 6개월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 선생님은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슬기로운 교사생활

구립해솔어린이집 김윤정

보육교사를 하며 2,3월은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하는 달이기도 해서 참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달이다. 퇴사하는 교직원도 있고 새롭게 입사하는 교직원도 있어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헤어짐은 아쉽고 첫 만남은 너무 어색하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자량을 하자면 교사가 입사하면 잘 바뀌지 않고 근무기간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복지가 좋아서? 아님 변화를 싫어하는 극 I성향의 교사가 많아서? 물론 이런 이유도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들의 단합과 존중 그리고 배려이다.

어린이집에는 각자 개성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교사들이 있다. 세모난 교사가 있으면 동그란 교사도 있고 별 모양의 교사가 있으면 하트모양의 교사도 있다.

이런 교사들이 모여서 동료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가진 동료들과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잘 형성되고 한배를 탄 동료로 헌신하고 다소 감정 스트레스로 피로한 직장생활에서 전투애가 생기고 가족과 같은 진짜 동료가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가족과 같은 동료에는 무슨 일든 함께 하면 옆에서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을 때 이루는 성취감이 무척 높은 것 같다.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근무환경과 업무강도도 무척 중요 하지만 동료와의 관계성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도 한다.

관계가 잘 형성되면 갈등이나 의견 차이도 쉽게 조율이 가능하다. 본인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조율이 쉽게 가능해져 원만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어린이집은 장기 근속자가 많다 보니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새로운 관계 즉 신입 교직원에 대한 배려이다.

극I성향의 교사들이 많다 보니 신입 교사에 대한 입장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고 내향적이라는 이유로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입 교직원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의 익숙함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그냥 넘기고 지나가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소통!! 소통만큼 확실한 처방전은 없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쌓여서 부풀어 난 오해는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교사는 신입 교사에게 나의 경험, 자원을 공유하고 신입 교사가 잘 적응하고 우리의 관계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감 없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

로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질 때가 많지만 그 힘든 상황을 동료라는 이름으로 함께 극복하고 존중해준다면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 되어나 스스로를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닐까 싶다.

새 학기라 모두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가까이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고 동료에 대한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서로가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면 좋을 것 같다. 모든 교사들 2024년도 파이팅입니다!!

#에피소드

어느 날 어린이집 보일러 고장으로 배관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있었다. 천장에서 폭우처럼 물이 쏟아졌고 교사들은 물을 받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긍정이 아니었을까?

우리 어린이집의 파워공정 선생님의 한마디 "선생님들 다 피하세요~ 이왕 젖은 김에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웃는 자가 일류다!!



2024년 놀이 에피소드 공모전
신나는 놀이이야기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웠던 경험을 담은 놀이 에피소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신나는 놀이이야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16작품을 게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참여해주신 모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수상작 ★

최우수상 요리조리 마음껏 붙였다 떼어요!

우수상 자료를 통한 놀이의 확장, 확장!
(모든지 내 놀잇감이 되어요)

우수상 자동차 놀이 어디까지 해봤니?

우수상 우리들이 만들고 고치는 종이마파트 이야기

장려상 흙으로 생각하고 흙으로 사랑해
(ESG환경 놀이)

장려상 데구르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구슬
그리고 쿼드릴라 블록

장려상 그림자가 왜 우리를 따라와요?

장려상 빗방울 놀이

장려상 펑펑 눈이 와요~

장려상 고무줄의 재발견

장려상 O세 친구들의 즐거운 풍선놀이

장려상 내 마음대로 상자

장려상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장려상 블록은 꼬리의꼬리를 물다

장려상 우리는 미래의 로봇 박사!

장려상 빛이 스며든 겨울



요리조리 마음껏 붙였다 떼어요!

인천삼산경찰서 어린이집 장수지

놀이 대상: 만 0세 평화로운반

놀이 기간: 2023년 5월 1주 ~ 6월 1주

1. 놀이 시작 배경(자꾸만 떼고 싶은 '교실 속 물건들')

신체 능력의 발달로 인해 잡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해진 만 0세 영아들의 시선은 바닥에 있는 놀잇감에서 교실 벽면으로 옮겨졌다. 벽면 속 촉감 판, 가족 사진판과 함께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싱크대까지 영아들의 관심사가 변경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아들이 벽면에 부착된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나타난 행동은 '잡아당기기'이다. 가족 사진판을 떼기 위해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싱크대에 부착한 모서리 보호대를 떼기 위해 힘을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직 대·소근육의 발달이 미숙한 영아들에게 벽면에 있는 물건들을 잡아당기는 행동은 영아들이 아직 대근육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의 눈에는 위험해 보였다. 영아들의 잡아당기는 모습을 관찰한 후, 메이트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떼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놀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영아들의 흥미가 벽면에 있는 물건들을 떼려고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떼었다 붙이기 놀이 지원 재료로 '벨크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놀이 과정 및 교사 지원(요리조리 마음껏 떼었다 붙여요!)

가족사진
판을 잡아
당겨요



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떼었다 붙여요



과일
나무를
만들어요



내 옷에도
과일이
붙어요



헤어롤로
붙여요

① 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떼었다 붙여요

가장 먼저, 평소 영아들이 즐겨 놀이하는 천 재질의 과일·채소 놀잇감을 붙여볼 수 있도록 교구장 뒷면에 부드러운 까슬이를 이용하여 냉장고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교구장의 까슬이를 발견한 영아들은 가장 먼저, 손과 팔을 이용하여 신체로 촉감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여러 가지 놀잇감을 붙여보다가 천 놀잇감이 붙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천 놀잇감을 가져와 붙이기를 시도하며 부드러운 천의 촉감과 까슬한 촉감을 느끼는 영아들에게 '까끌까끌해', '부드럽네', '찌익~' 등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들려주며 영아들의 언어 발달 지원을 해주었다.



참외가
붙어요!

② 과일나무를 만들어요

붙였다 떼기 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이 점차 많아지며 한정적인 공간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벽면에 펠트로 나무와 함께 다양한 과일 사진에 까슬이를 붙여 지원해 주었다. 그러자 벽면에서도 붙였다 떼기 놀이를 이어가며 갈등 상황이 감소하고, 흥미가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양한 과일을 나무에 붙였다 떼는 놀이뿐만 아니라 먹는 흉내, 선생님에게 먹여주는 흉내도 내며 다양한 놀이로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③ 내 옷에도 과일이 붙어요

냉장고와 나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는 영아들이 자신의 옷 위에도 붙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영아들이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펠트 옷을 제작하고 까슬이가 붙어있는 자르기 과일을 제공하여 영아들이 자기 신체에 붙이며 놀이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자 영아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고, 자기 신체에 과일과 채소를 붙이며 붙였다 떼기 놀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놀이를 반복하던 영아들

은 또래에게도 과일과 채소 붙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00이가 00이 옷에 붙여주었네?”, “00이 옷에 수박이 붙었다!”하고 언어로 읽어주며 친구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사를 또한 니트류의 옷을 입으며 영아들이 옷에도 붙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놀이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④ 헤어롤로 놀이해요

자기신체에 붙이기 놀이에 흥미를 보이던 영아들은 자신의 머리에도 붙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헤어롤’을 제공해 주어 영아들이 자기 머리에 붙이기 놀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더불어 과일나무에 붙였다 떼기를 좋아하던 영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벽면에 펠트 얼굴을 붙여주어 자기 머리와 함께 벽면에도 붙였다 떼기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벽면에 헤어롤 붙이기 떼기를 반복함과 더불어 자신, 친구, 교사의 머리에도 헤어롤을 붙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교사는 머리를 대어주며 함께 머리에 헤어롤을 붙이는 놀이를 통해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점

① 교사의 느낀점

‘만 0세 반에서 놀이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놀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표준보육 과정에서 교사의 고민은 끊임이 없다. 만약 영아들이 떼려는 동작에 대해 ‘위험해... 그건 떼는 게 아니야’라는 일상적인 언어로 상호작용을 했다면 영아들의 놀이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만 0세는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표현 언어로 자신들의 관심을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영아의 흥미를 관찰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영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임을 언어로 주의를 주는 것보다 무엇이든 떼려고 하는 영아들의 행동을 욕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놀이로 풀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 영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임을 깨달았다. 또한, 이로써 놀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어린 영아들 또한 놀이를 통해 전인 발달을 이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때는 영아들의 행동을 욕구와 놀이임을 인정해 주고 이를 놀이를 통해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② 신체발달 증진

만 0세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며 주변을 탐색 및 자기신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움직임 발달시키는 연령이다. 이에 잡고 서기를 하는 영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벽면을 활용한 벨크로 놀이를 지원해 주어 영아의 관심이 교육과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아들은 벽면을 활용한 벨크로를 붙였다 떼는 놀이를 통해 다리의 힘이 생기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변화가 생겼다. 또한,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고, 부차 위치를 조절해 보며 눈과 손을 협응한 놀이를 통해 소근육이 발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③ 사회·정서발달 증진

영아들의 벽면에 제시된 가족사진이나 모서리 보호대를 ‘잡아당기기’라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벨크로 놀이’로 반영하여 진행함으로써 영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놀이로 표현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놀이 시간 중, 개별 특성에 따른 놀이와 함께 또래 및 교사들에게 붙였다 떼기를 반복함에 따라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신체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의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을 통해 사회·정서 측면이 발달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④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의 이해

가족 사진판, 촉감판과 같이 벽면에 붙어있는 것을 떼려고 하면 영아들은 ‘벨크로 놀이’를 통해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흥미는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벨크로’라는 안전한 놀잇감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벽면에 붙은 물건들을 떼려고 시도하는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였다. ‘벨크로 놀이’를 통해 영아의 호기심을 위험한 상황이 아닌 안전한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진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료를 통한 놀이의 확장, 확장! (워든지 내 놀잇감이 되어요)

국공립 루원SK2품가득어린이집 정 지 우

1. 놀이 시작 배경



5월, 우연히 바닥에 붙여진 색 테이프 조각을 발견한 것이 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색 테이프를 발견하여 관찰하더니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발로 킁킁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뭘까?”라는 호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테이프를 뗄 수 있도록 작게 떼어놓자, 손으로 테이프 조각을 잡고 떼더니 다시 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에게 시작된 호기심이 다수의 아이들에게도 번져 색 테이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직 테이프를 자르기 어려운 만 1세 아이들을 위해 적당히 잘라서 제공해 주니 테이프를 바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여보고 자기 몸, 친구, 선생님 몸에도 붙여보았습니다.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며 집중하던 아이들은 이내 바닥에 붙여진 색 테이프 조각 위에 자신의 발을 뚫! 하고 올려 보기도 하며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굴리던 친구들은 색 테이프의 길을 따라서 굴려보는 등 놀이가 탐색에서부터 점차 확장되고 여러 영역과 연계되는 과정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만 1세 영아들을 위해 놀이 지원자로서 어떤 놀이를 지원해 주어야 할까, 라고 고민하던 때에 영아기의 아이들도 놀이의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놀잇감이 아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놀잇감으로 제시해 준다면 어떤 놀이가 이루어질까, 라는 궁금증과 기대감과 함께 놀이가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놀이 과정 및 교사 지원

색 테이프 외에도 색 테이프와 같은 성질을 가진 시트지를 벽면에 붙여주었더니 아이들이 여러 놀잇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놀잇감들인 자동차, 음식모형, 소꿉놀이 등 여러 놀잇감을 붙였지만 놀잇감의 무게로 인하여 이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나가는 것이 아닌 폼폼이, 백업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백업은 여러 모양을 가진 백업으로 제공해 주니 백업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폼폼이와 백업은 시트지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열심히 붙이던 아이들은 이내 백업과 폼폼이로 여러 구성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함께 놀이하며 네모난 형태를 만들어 주니, 아이들이 그 안에 폼폼이를 붙이고 백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네모 아래에 붙인 백업이 바퀴처럼 보였는지 “빠방! 자동차!” “기차!”라고 말하더니 개월 수가 빠른 친구가 바퀴 아래에 기다란 모양의 백업을 붙여 길을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이내 시트지보다는 백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모양의 백업으로 놀이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업 조각들을 높이 쌓아서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고, 백업을 구부려서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업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다른 백업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백업 안에 넣어서 주었더니 아이들이 다른 백업과 연결하여 여러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길게 백업이 연결, 연결되는 형태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연결한 백업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핫도그가 됩니다. 아이들은 백업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핫도그를 이용해서 맛있게 먹는 시늉을 내거나 판매하는 상상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백업으로 연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줄을 제공해 주고 백업에 구멍을 내주었더니, 구멍 안에 줄을 끼워 넣으며 놀이에 몰입합니다. 길게 연결된 백업은 아이들의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팔찌가 되기도 합니다. 연결된 백업은 자동차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자동차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택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트지의 접착면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 색 테이프를 다시 제공해 주었습니다. 색 테이프를 길게 뜬주었더니, 문에 붙이고 거미줄을 만

들어 냅니다. 교사가 함께 놀이하며 색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고 상상력을 더해줍니다. 거미 모형을 가져와서 붙이더니 “배고픈데, 뭘 먹지?”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폼퐁이, 백업 그리고 다른 곤충 모형들을 가져옵니다. 곤충 모형을 거미 모형 옆에 붙이더니 “거미가 잡아먹어.”라고 표현 언어가 가능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다른 곤충 모형을 구해주자며 모형을 떼었다가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심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11월 또다시 색 테이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다리에도 붙이고, 5월과 달리 이제는 상상력을 마구 발휘하여 상황극을 합니다. 눈가에 붙인 건 <안경> 팔과 목에 붙인 것은 악세사리도 되지만 상처에 붙이는 밴드가 되어서 친구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색 테이프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잇감이었지만 금방 구겨져 버리는 특성 탓에 불편함을 보이던 우리 아이들에게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절연 테이프는 탄력성이 있어 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서로 붙어도 다시 떼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테이프 조각을 제공해 주니, 아이들이 바닥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5월과 다른 놀이 수준을 보여줍니다. 서로 함께하는 놀이가 가능해져서 바닥에 조각을 붙인 친구들과 함께 연결하여 붙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붙인 테이프 뒤에 내 테이프를 붙여보고 연결하더니, 문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이 “문이 있네. 문 열어줄까?”라고 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문을 열어주니, 빨간 테이프를 따라서 연결하여 문밖으로까지 공간 확장을 시작하는 만 1세의 우리 친구들. 몇 주에 걸쳐 진행된 테이프는 어느새 교실 바닥에 여러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공간 안에 곤충, 동물들을 분류하여 놓아두던 아이들이 먹이를 먹으라며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동그란 스티커에 비해 테이프가 얇은 탓에 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굵은 색 테이프로 아이들이 구성한 테이프를 따라 붙여주었더니, 동그란 스티커를 공간마다 붙여주어 곤충과 동물, 공룡까지 먹이 집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놀이는 동물, 곤충, 공룡을 이용한 상상 놀이로 번져 오래 놀이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점

색 테이프, 백업, 폼퐁이, 아이스크림 막대 등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놀잇감이나 미술 활동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입니다. 하지만 자료 자체로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훌륭한 놀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질감, 성질들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며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놀잇감이기때 상상력을 키우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동일한 자료가 점차 놀이가 확장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놀이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처음 접는 놀이의 자료라도 자신 있게 자신의 놀잇감, 나의 놀이화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탐색과 교사의 도움으로 시작되었다면 11월에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간마저도 교실에서 외부까지 뻗어나가는 놀이의 자유로움과 주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는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유능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아반 교사로서 ‘영아기의 놀이 중심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보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놀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놀이는 뱃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교사는 놀이의 지원자, 놀이 친구로서 아이들을 믿고, 함께 한다면 내면에 잠재된 우리 아이들의 유능함, 반짝거리는 보석이 훨씬 빨리 발견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놀이 어디까지 해봤니?

남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김주연

1. 놀이 시작 배경

cctv놀이와 경찰관 놀이

'생활과 도구' 주제로 컴퓨터 관련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중 한 유아가 컴퓨터 화면을 cctv라고 말하기를 시작으로 cctv가 경찰 놀이로 확장되었고 경찰차를 구성하고 이외에 여러 가지 자동차를 구성하며 다양한 자동차 놀이가 이루어졌다.



내가 도둑이 있나 살펴볼게.”,
“어 여기 cctv 보니까 도둑이 도망간다!!
잡으러 가자!!” 라며 경찰관놀이가 이루어졌다.



cctv놀이와 경찰관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모습과
경찰놀이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며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놀이 과정 및 교사 지원

경찰서 견학 후 경찰차에 흥미가 생겨 경찰서 놀이에서 경찰차를 만드는 놀이로 확장되었다. 다양한 경찰차를 만들며 cctv를 보다가 범인을 발견하면 와를 블록으로 만든 경찰차를 타고 출동하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고 경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자동차를 구성하며 교실 전체가 자동차 도로가 되었다. 유아들끼리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 시험하고 움직이며 부딪혀서 다치거나 싸우는 등 갈등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며 교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아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다 키즈카페에 방문했을 때 자동차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놀이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동차길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 경찰차와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 놀이하는 유아들



↑ 교실전체를 자동차를 이동하며 놀이하여 교실이 아수라장이 된다.
“너 때문에 내게 망가졌잖아!”, “저기로 가라고 나 여기서 놀거야~”



↑ 키즈카페에서 놀이한 자동차길을 떠올리며 교실 한켠을 자동차도로로 만들어준 모습
“저번에 키즈카페 갔을 때 자동차 도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보는건 어때요?”, “와! 진짜 넓어졌다”

♣ 교사지원. 교실의 책상을 옮기고 바닥에 색 테이프로 교실 한 곳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줌.

유아들의 흥미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교실의 책상을 치우고 한칸을 비워 넓게 만들고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주었다. 이전에는 “걸어다니자.”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자”라고 말로만 하였을 때 변화가 없었다. 교사가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언어적 개입을 하지 않아도 유아들의 갈등 상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동시에 더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자동차도로에서 질서있게 자동차를 타고 놀이하는 유아들

질서 있게 자동차 놀이하던 것도 잠시, 자동차가 가다가 망가지면 그 자리에 앉아 고치느라 뒤에 친구들이 밀려 새로운 갈등 상황 발생하게 되었다. 유아들과 방법을 이야기하던 중 한쪽에 자동차를 고치는 곳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글자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자동차 고치는 곳’이라는 글자를 적어 표시하여 보여주었다.



↑ 글자를 쓸 수 있는 유아들이 적어 준 '자동차 고치는 곳' 표지판

그러자 새로운 놀이인 카센터 놀이가 시작되었다.

♣ 교사 지원. 공구 놀잇감 제공 및 카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기

도로 사잇길에 ‘자동차 고치는 곳, 카센터’가 따로 만들어지자 주행 중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고치는 곳’으로 따로 빠져나와 고치고 이동하거나 다양한 공구 놀잇감으로 자동차를 고쳐주는 카센터 놀이가 이루어졌다.



↑ 카센터 놀이를 즐기는 유아들

“자동차 고장난 사람 여기로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뽕뽕! 여기 막히잖아 자동차 고장나면 저기 가서 고쳐야지~!”

♣ 교사지원.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놀잇감 제공.

이후에도 자동차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유아들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자동차 놀잇감을 제공해 주었고 새로운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며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되었다. 다양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그동안 했었던 카센터, 신호등, 자동차 도로에서 놀이하기 등을 하며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놀이하는 유아들
“내가 만든 자동차 어때?”, “와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나도 알려줘.”, “나랑 자동차 시합하자 자 시작!”

♣ 교사지원. 실외활동 시 봉봉카 제공 및 상호작용

더 나아가 실내에서만뿐 아니라 실외 활동 시간에 봉봉카를 제시하자 유아들은 교실에서 본인들이 만든 규칙을 이야기하며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중구난방으로 타며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사가 “얘들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자 “우리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올 때는 이쪽으로 오는 거 아때요?”라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블록 갖고 나가서 신호등 만들어요.”라며 초록, 노랑, 빨간색 벽돌블록으로 교통신호 놀이를 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봉봉카 안타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다니는 건 어때? 사람이 다니는 곳과 자동차가 다니는 곳을 구분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갔다.



↑ 공원에서 유아들끼리 규칙을 정한 뒤 안전하게 놀이하는 유아들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영유아의 변화〉

처음엔 생활 주제인 생활과 도구 - 컴퓨터 놀이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cctv놀이, 경찰관 놀이, 경찰차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자동차 도로 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어 이루어졌다. 교사 주도의 놀이가 아닌 유아들의 흥미 위주의 놀이를 따라가다 어느새 생활 주제가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따른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며 평소 놀이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실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화였다.

유아들의 선호에 따라 교사 개입은 최소화되 유아들의 흥미가 유지되고 증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적 지원을 해주었고 유아들의 놀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자 매일 같은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파생된 다양한 놀이들(ex.캐스터놀이, 신호등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블록으로 다양하고 멋진 모습들의 자동차를 구성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높아졌고 자연스러운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만들어가는 자주적인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의 변화〉

생활 주제에 맞춰 계획을 작성하며 그 안에서 흥미를 유발하며 자연스러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계획안 속의 활동들이 아닌 유아들의 흥미를 따라가니 놀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었고 창의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이 증가한 것을 느끼며 흥미 위주, 유아 주도의 놀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생활 주제나 계획안에 적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를 따라가고 그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 유아들의 놀이 가치를 이해하며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하면서 몰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관찰을 통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겠다.





우리들이 만들고 고치는 종이아파트 이야기

현대제철인천어린이집 정 하리

자신만의 책을 만들며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며 종이에 대한 흥미를 키워가던 해솔반 아이들은 종이를 이용해 다양한 표상을 만들기를 즐겼다. 그러던 중 종이를 돌돌 말아 빨대를 만들어 놀이하면서 종이 말기 도전이 시작되었다. 아직 종이 말기를 어려워하여 종이를 돌돌 구기는 수준이었지만 종이 말기에 대한 흥미는 매우 높았다. 하리가 종이 말기를 시작하자 하라도 하리를 따라서 종이를 말았다. 그러나 종이 말기가 잘 되지 않자 잔뜩 짜증을 내면서 교사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울음 섞인 소리를 내었다. 종이가 말리지 않자, 짜증 내는 하다, 하리와 교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지만, 교사는 도움을 주기보다 하다와 하리가 스스로 종이를 말아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계속되는 종이 말기 후 드디어 돌돌 말린 종이가 완성되었다.

하다 : 선생님! 됐!

교사 : 와! 우리 하다 성공했네!

하다 : 하나 더 만들까? 선생님이 처음에 해주면 내가 해보는 건 어때?

교사 : 아~ 선생님이 처음에 종이를 조금 말아주면 하다가 손바닥으로 밀어볼래?

하다 : 좋아!

단순히 “선생님이 해줘요”라고 말하던 하다가 종이 말기를 하나 성공하자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하다의 말을 듣고 종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말릴 수 있도록 처음 부분을 말아서 건네주었다. 종이 말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하리 하다가 더욱 종이 말기에 집중하였다. 반복적으로 종이를 말던 하리가 또 다른 종이 위에 돌돌 말은 종이를 수직으로 붙였다. 네 모서리에 기둥을 모두 붙인 하리가 종이 기둥을 잡고 뒤집어 테이블처럼 세우고 말했다.

하리 : 이것 봐! 내 집이야! 내 집!

하다 : 나도 하리처럼 집 만들래!

교사 : 좋아! 선생님도 집 만들어야지!

하다와 교사가 종이를 말아 종이 기둥을 만들고 종이 위에 수직으로 붙여 기둥을 세운 뒤 뒤집어서 하리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교사가 하리 집 지붕 위로 교사가 만든 집을 올리며 “이것 봐! 아파트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모습을 본 하다, 하윤, 준우가 다가와 “나도 아파트 만들래!”라고 이야기하며 종이 아파트 만들기 참여하였다. 그렇게 해솔반에는 종이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종이 아파트를 만들고 꾸미며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놀이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후, 아이들은 종이 아파트를 처음 만들 때와 달리 종이아파트에 관심이 줄어든 듯하였고, 더 큰 문제는 종이 아파트가 자주 쓰러져서 종이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종이 아파트가 쓰러지자 “아……, 종이 아파트 쓰러졌네…….”하고 말끝이 한없이 내려가는 교사와 달리 아이들은 “종이 아파트가 쓰러졌다!!!”하고 말끝을 한없이 올렸다.

분명 무언가 지금 신이 났음을 알 수 있었다.

준우 : 아파트가 안쓰러지게 기둥을 더 만들면 어때요?

교사 : 오! 기둥을 더 만들어서 더 붙여 볼까?

준우 : 응! 내가 만들어 볼게!!

준우의 아이디어에 함께 종이를 돌돌 말아 기둥을 더 만들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둥을 추가하여 붙여 주었다. 꽤 튼튼해졌다. 종이 아파트는 다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교사를 비롯이라도 하는 듯 아파트는 다시 쓰러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 “아고 탄식하는 교사”와 “아!”하고 환호하는 두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서진 : 아파트가 무너졌다! 아파트가 무너졌다!

교사 : 맞아…, 아파트가 또 무너졌어. 이상하다….

왜 기울어지지…, 어떻게 하면 안 기울어질까?

하다 : (놀이하고 있던 종이 상자를 아파트 옆에 붙이며) 그럼 내가 이거 줄까?

이렇게 하면 어때?



하다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재활용 종이 상자를 아파트 옆에 붙여 세우니 확실히 상자에 기대어 아파트가 쓰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여전히 아파트는 또다시 쓰러졌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고치는지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

교사 : 아파트 또 쓰러졌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준우 : 또 고치면 되지!

교사 : 어떻게 고쳐? (A4용지로 만든 기둥이 기우는것을 보며) 여기가 너무 약한가...

준우 : 그럼 튼튼한 종이로 만들까?

교사 : 튼튼한 종이?

준우가 말한 튼튼한 종이는 두꺼운 도화지였다. 두꺼운 도화지로 기둥을 만들어 더해줄려는 것이었을까? 예상 밖으로 준우는 두꺼운 종이로 기존에 A4용지로 만든 기둥을 감싸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도 여전히 쓰러지는 아파트!

교사 : 애들아! 아파트 쓰러졌어!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하윤 : 골판지를 돌돌 말아서!

옆에 붙여보면 어때요? 나무처럼 튼튼해지랴구!

그러면 안쓰러지잖아~

종이 아파트를 고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공하기도,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종이 기둥을 만들어 더해보고, 기존의 종이 기둥에 두꺼운 도화지를 감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보고, 상자와 골판지 기둥을 지지대로 붙여주면서 종이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종이의 힘이 더 강해지는지, 물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는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종이 아파트를 통해 종이에 특성에 대해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해솔반 아이들은 종이를 놀이하면서 종이에 특성에 대해 알고 가고 배우는 경험을 한 것일까?

처음 아이들의 종이에 대한 흥미를 지원하고자 하였을 때, 종이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종이의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탐구하고 종이의 특성을 이해하여 활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의 놀이 속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준우 :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서진 : 애들아~ 애들아~ 여기 집하면 어때?

하윤 : 그럼~ 어...이렇게 하면 어때? 가위로 다 잘라가고 따로따로 놓는 거 어때?

서진 : 자동차 집하면 어때? 자동차 집!

준우 : 좋아!

서진 : 좋아! 좋아! 좋아!

준우 : 각자 위치로! 애들아~ 여기 의자.. 어때?



마치 유행어처럼 “~하면 어때?”를 외치는 해솔반 아이들!

해솔반 아이들은 함께 종이 아파트를 만들고 망가진 부분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아이디어를 내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해솔반의 종이 놀이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경험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종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를 돌돌 말 때 어려움을 느끼고 짜증을 내던 아이들은 무너지는 종이 아파트를 고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의사 표현하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값진 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해솔반 아이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진정한 놀이의 주체가 되었다.





흙으로 생각하고 흙으로 사랑해 (ESG 환경 놀이)

공항공나무제1어린이집 임수현

1. 놀이 시작 배경

비가 내린 다음 날, 어린이집 주변 잔디 구장을 산책하던 중 흙의 젖은 부분과 젖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유아들이 "어! 색깔이 다르다! 왜 다른 거지?"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표현했다. 이후 모래 놀이터에서 물을 부으며 놀이했던 경험과 젖은 흙을 밟던 경험을 회상하기 시작했고, 마른 흙과 진흙을 손으로 만져 보거나 발로 밟아 촉감을 비교하며 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들아! 일루 와봐! 여기 촉촉한 흙이 있어!" 하고 마른 흙과 진흙을 찾아다니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연



1) 흙에도 종류가 있어요

(1) 우리는 흙 탐사대!

흙을 탐색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유아들을 위해 돋보기와 채집통을 제공해 주었다. 유아들이 "여기에도 흙이 있어!"라고 말하며 흙을 찾아 돌보기로 흙 알갱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색을 관찰하였다. 또한, 찾은 흙을 채집통에 담은 뒤 관찰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아들은 흙을 찾는 과정에서 식물을 자라게 도와주는 흙과 놀이터의 모래는 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호기심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흙의 종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본 뒤 관련된 그림책들을 제공해 주었다. 계속해서 바깥에서도 교실에서도 흙을 찾기 위한 유아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바깥에서는 잔디 구장의 흙, 놀이터의 흙, 텃밭의 흙을 발견하고, 교실에서는 애완용 달팽이가 사는 코코 피트, 화분에 있는 흙을 발견했다. 흙을 찾아 탐사를 떠난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 황토와 바닷모래 등 다양한 흙들, 탐험을 떠날 수 있는 의상과 소품을 제공해 주었다. 유아들이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지금 바다에 있는 모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래를 찾아주세요!"라며 모래를 찾아보거나 흙의 차이를 비교하는 놀이를 이어 나갔다.

(2) 흙과 물이 만나면!

유아들이 분무기를 이용해 흙에 물을 뿌려 진흙을 만들거나 물을 가득 부어 흙탕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흙과 물이 분리된 모습을 보며 "우와! 꼭 바다 같아!"라며 관찰하거나 분리된 흙과 물을 다시 섞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더불어 흙을 종이에 뿌려 손가락으로 찍적이거나 물을 뿌려 굳어진 진흙을 이용해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특히 황토와 물을 섞어 만든 황토물을 이용해 놀이하기를 즐겼는데, 손가락으로 황토물을 꼭 짰을 뒤 그림을 그려보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붓과 두꺼운 도화지를 제공하였더니 붓으로 황토물의 질감을 느끼며 힘의 세기를 달리해 그림을 그려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황토물을 흘리고 휴지를 닦았을 때 황토색으로 염색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지와 천을 염색해 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 속 흙을 탐색하는 모습



수집한 흙을 탐색하는 모습



흙과 물을 섞는 모습



황토물로 염색 놀이를
즐기는 모습



황토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



편백 칩을 이용해 공룡 화석
발굴 놀이를 하는 모습

2) 땅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1) 땅속에 사는 너! 바로 '개미'

놀이터에서 모래를 관찰하던 유아들이 “개미는 어디로 간 거지?”, “개미도 겨울잠 자러 간 건가? 선생님! 왜 개미가 사라졌어요?”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키우는 모래에도 개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미의 생김새 사진을 제시하였고, 점토와 꿀단지 등 개미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재료를 지원했다. 개미집도 있으면 좋겠다는 유아들과 각자의 집을 떠올리며 어떤 방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개미집에는 어떤 방들과 식구들이 살지 상상해 보았다. 이후 친구들과 협동하여 찰흙을 이용해 알 방, 아기방, 여왕개미 방, 일개미 방, 먹이 방, 놀이방이 있는 개미집을 구성했다. 함께 구성한 개미집과 개미를 이용해 “나는 여왕개미! 아기들을 돌봐야 해!”, “난 수염장에서 놀래!”라며 극놀이를 이어 나갔다.



(2) 특별! 땅속 마을을 만들어라!

땅속 개미집을 구성하며 놀이하던 유아들은 “땅속에는 공룡 뼈가 있어!”, “커다란 나무뿌리도 있지!”,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서로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 “우와! 땅속에 들어가서 구경할래!” 등 땅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을 갖고 다양한 생각들을 표현했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반영한 거대한 땅속을 구성하고 싶다는 욕구를 바탕으로 영역을 나누기 시작했다. 영역 안에 레고와 나무 블록을 이용해 마을을 구성한 유아들은 음식 모형을 들고 친구들과 땅속 마을에서의 생활을 극 놀이로 표현하며 즐겼다. 더불어 레고를 이용해 탐사선을 만들어 “내가 탐사선 조종할게! 빨리 문 닫아”, “다 도착했습니다! 여긴 장수풍뎅이 마을입니다!”라고 말하며 탐사선을 타고 땅속 마을을 탐색하며 놀이를 즐겼다.



찰흙을 이용해 개미집을
구성하는 모습



개미집과 개미를 이용해
극 놀이를 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땅속 이야기



탐사선을 만드는 모습

3) 크앙~! 나만의 흙 몬스터 만들기!

한 유아가 종이에 그림을 그린 뒤 “선생님! 아주 무시무시한 흙 몬스터예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요!”라며 교사에게 소개했다. 이 모습을 본 유아들이 너도나도 흙 몬스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완성된 몬스터를 가위로 오려 막대를 붙이거나 손으로 조종하여 극 놀이를 하고, 교실에 있는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흙 몬스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교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을 손으로 움직이며 놀이하기에 흥미를 느끼는 유아들에게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다. 먼저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패드로 촬영한 뒤 AI 사이트에 들어가 움직일 영역을 정해주고, 다양한 동작으로 움직여 보았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익살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를 하거나 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창의적으로 만든 자신의 움직이는 흙 몬스터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 TV에 연결해 그림 작품을 소개한 뒤, 흙 몬스터가 땅속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신체를 조절해 움직여 보았다. AI 사이트에서 영역을 정해주는 부분이 유아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 아쉬웠지만, 유아들과 AI를 접하며 스마트시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더불어 유아들이 좋아하는 ‘몬스터’를 이용해 놀이하여 무생물인 흙을 생물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유아가 그린 흙 몬스터



교구로 만든 흙 몬스터



AI로 만든 움직이는 나만의
흙 몬스터를 소개하는 모습

3. 놀이를 통한 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 점

◆ 흙으로 생각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인 ‘흙’을 이용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탐색하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함에 따라 창의적으로 놀이를 이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 자신도 놀이를 진행하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을 하며 공동 놀이자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 흙으로 사랑해

수집한 흙을 관찰하던 유아들이 교실에서 키우는 식물과 곤충, 동물처럼 흙에도 이름을 정해주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이름을 정해주고 이름표까지 만들어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모습을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물인 ‘흙’을 이용해 놀이하면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더불어 친구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협력하여 놀이하면서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





데구르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구슬 그리고 퀴드릴라 블록

공형꿈나무제2어린이집 류인선

3월의 첫날. 어느 때와 같이 첫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유아들은 무슨 놀이를 좋아할까? 라는 질문에 유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함께라는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위주로 구성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의 첫날을 계획했다. 나무반에는 특별한 블록이 있다. 그 블록은 혼자 놀이할 때보다 협력이 필요한 놀이라고 생각이 들어 퀴드릴라 블록으로 교구장을 가득 채워주었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챈 듯 유아들은 ‘퀴드릴라 블록’ 앞에 모여 앉았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블록 놀이. 유아들에게 블록 놀이란 무엇일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혼자 놀이할 수도 있지만 함께 놀이할 수도 있는 놀이? 유아들의 놀이를 떠올리며 다양한 질문이 생겨났다. 어느 연령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매력적인 블록놀이. 그런 블록 놀이가 나무반에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게 될지 무척 궁금해졌다.

1. 선생님 우리가 건축가가 된 것 같아요!

퀴드릴라 블록은 나무 트랙으로 길을 구성하고, 원형 트랙, 직선 레일, 곡선 레일, 그리고 10가지 가속장치를 이용해 그 위에 수많은 구슬을 굴려 도착 지점까지 보내는 블록이다. 나만의 방법으로 길을 구성하던 유아들은 구슬을 굴려보며 점점 더 놀이에 몰입하게 되었다. “선생님 우리 정말 건축가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아까랑 똑같이 굴렸는데!” “블록 안에 뭔가가 있어서 자꾸 방향이 달라지 나봐요!” 아이들은 블록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놀이에 더욱 몰입하였고, 블록과 트랙을 어떻게 사용하고, 기울기를 다르게 하냐에 따라 구슬이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하고, 놀이의 방법과 결과가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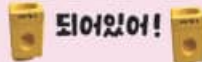


2. 이 블록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서와 설계도를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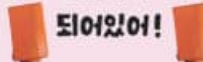
유아들이 놀이하며 탐구한 것처럼 트랙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블록의 각 기능은 다르다. “나는 빨간 블록이 좋아 이 블록은 안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있다?”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블록이 알맞아. 그래야 다음 칸으로 구슬이 이동하지 않겠어?” “너의 아이디어 좋다! 이번엔 너의 아이디어로 해보자!” 하고 유아들은 놀이하며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래와 연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커다란 트랙을 완성하고 있었다. 블록을 그림으로 그리고, 실물 재료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해 주기 위하여 “그럼 우리 너희 말대로 같이 설명서를 만들어볼까?” 하고 제안했고, 유아들은 교사의 이야기에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라 설명서와 설계도를 만들 수 없어요” 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동시에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사용하는 블록과, 트랙, 지금까지 만들어 보았던 완성된 트랙과 아이들이 한 대화를 인용하여 적은 뒤 인화하여 유아들에게 되돌려주었다. 제공해 준 사진을 이용해 유아들은 다시 한번 탐구하고,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을 활용해 또래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으며 또래의 설계도와 설명서를 통해 다른 유아들은 새로운 방향과 관점에서 놀이를 할 계기가 되기도 했다.

**퀴드릴라
블록 사용 설명서**

**옆으로 나오게 하려면
노란색이 필요해
이건 옆으로 나오게
되어있어!**



**밑으로만 가게 하려면
주황색이 필요해
이건 구멍이 아래로만
되어있어!**



**정프기능도 만들자!
이걸 사용하면 구슬이
튀겨서 정프를해**



3. 그런데, 이 블록은 혼자 할 순 없는 것 같아! 같이해볼까?

설명서가 생겨난 뒤 유아들은 퀴드릴라 블록을 활용해 놀이 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하지만 자꾸 트랙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한 유아가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놀래? 이걸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하고 이야기했고, 함께 구슬을 굴려 실험을 해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혼자 했을 때 보다 더 복잡한 트랙의 결과물, 더 이른 시간의 완성을 경험했으며 또래와의 협동을 통해 놀이를 확장시키고 이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또한 형성할 수 있었다.



4. 꼭 놀이동산 같아요. 구슬 놀이동산!

구슬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유아들은 '놀이동산'을 떠올렸다. 미끄럼틀, 롤러코스터 등 구슬을 보며 위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들을 떠올린 것이었다. 제한된 놀이를 유도하는 블록과 트랙보다 새로운 매체를 제공해 줄까? 라는 생각에 블록과 구슬의 개수를 줄이고, 휴지 심을 유아들이 블록 놀이 공간에 살며시 제공해 주었다. 교사의 선택으로 유아들의 놀이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어떻게 변화할까? 또 어떠한 놀이가 생겨날까? 놀이 속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졌고, 기대감을 가지고 때마다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며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5. 그렇게 탄생된 재활용품 놀이동산.

유아들은 퀘드릴라 블록의 시작, 도착 지점의 터널만으로 휴지심을 이용하다가 점차 중간 지점의 블록을 휴지심으로 바꾸어 보며 변화시켰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놀이는 관찰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상상하기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놀이가 변했어요. 이제는 재활용품 놀이동산이에요” 유아들이 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유아들은 그 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놀이동산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았다. 또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우와 네 말대로 반으로 자르니까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진다.” “기울기를 만들어야 해. —자는 구슬이 굴러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걸 여기에 설치해 볼까?” “어떻게 해야 이어질까?” 등의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고, 유아들은 이렇게 궁금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위한 탐구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표현하며 창의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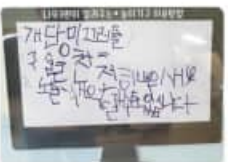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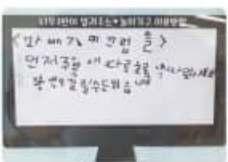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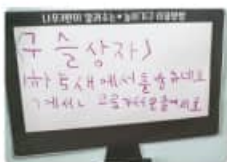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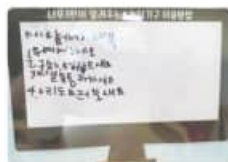
6. 다른 놀이동산도 만들어볼까?

유아들의 놀이동산 만들기는 계속되었고, 재료를 선택하는 폭도 넓어졌다. 유아들은 상자를 잘라 길고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 상자 안에 붙여나가기 시작했고, 상자 안에는 커다란 미로가 생겨났다. 유아들은 미로 안에서 구슬을 굴려 본 후 “테이프는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장애물을 만들자” “탈출하기 어렵게 하는 거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놀이에 더해가며 다양한 놀이기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7. 약속이 필요해!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서 다들 이용하니 망가질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앞서 놀이기구에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놀이터가 점차 망가지고 있었다. 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약속’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약속을 정하기로 했다. 유아들이 생각하는 약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글과 그림으로 우리의 약속을 정해보았으며 약속을 지키며 놀이 할 때와, 지키지 않고 놀이할 때의 차이점을 경험해 보기도 했다. “선생님 약속이 있으니까 놀이할 때 친구와 싸우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동생, 친구들을 초대해요!” 하며 자연스럽게 약속과 규칙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는 힘 또한 기를 수 있었다.



8. 어느덧 하나가 된 나무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다 보니 1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있었다. 함께 할 수 있는 퀘드릴라 블록 놀이로 시작해 어색하고, 불안했던 학기 초의 시간을 따뜻함과 든든함, 함께라는 힘과 함께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반만의 약속도 생겨났다. 학기 초의 불안감과 걱정은 어느새 사라져 하나가 되었다는 든든함으로 가득 찼고,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능동적으로 놀이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교사 또한 유아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유능함을 느끼며 놀이에 대한 색다른 의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자가 왜 우리를 따라와요?

블로대광로재비앙어린이집 최은경(원장)
김한별(산나리반 만2세 담임교사)

1. 나와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영아들과 함께 바깥 놀이로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자신을 뒤따라오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관심을 보이며 “나랑 똑같은 친구가 따라와!” “어? 나도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라고 말하며 한 명의 관심이 전체 영아들에게 확산되었다. 영아들이 그림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토래, 교사와 함께 주고받다 한 영아가 “어린이집에 초대할 줄 거예요!”라고 말하며 영아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어린이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교사가 영아들에게 “어떻게 어린이집에 초대할 수 있을지?” 상호작용하며 영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였다. 교실에 함께 들어온 똑같은 친구를 보며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림자의 생김새와 크기 등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림자 친구와 놀고 싶은 놀이들을 토래, 교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흥미를 나타내어 이러한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여 ‘그림자’와 관련된 놀이 지원을 계획하였다.

2. 내 친구의 이름은 ‘그림자’

영아들이 교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림자를 활용한 놀이를 하며 흥미가 지속되는 모습에 이와 관련된 벽면 동화자료, 셀로판지, 그림책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치하여 지원해 주었다. 영아들이 자료들을 이용해 놀이를 하며 ‘나와 똑같은 친구’가 ‘그림자’임을 알게되었고, 영아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토래들의 그림자를 비교하며 이름을 지어주거나, “선생님 친구는 집에 왜 안 가요?”라고 말하며 교실 내에 있는 교구들로 그림자의 집을 구성해 주기도 하고, 그림자의 엄마 아빠가 되어 놀이하거나, 친구와 함께 그림자를 이용하여 똑같은 모습 만들기 놀이 등 여러 가지 교구, 재료들을 활용하여 놀이가 이루어짐에 따라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놀이들이 지속되며 영아들이 그림자가 나타나고 사라짐에 대해 궁금증을 보여 교실 내에서 영아들이 직접 놀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교실 공간을 나누어 빛이 들어오는 공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을 구성하여 지원해 주었다. 영아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자 친구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에 그림자 친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아들의 이야기에 손전등을 건네주자 영아들이 손전등으로 놀이하다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며 영아들이 손전등과 어두운 공간에서 놀이하기도 하고, 빛이 비치는 공간 앞에서 있을 때의 그림자를 발견하며 놀이를 통해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3. 변신쟁이 그림자로 놀이해요!

우연히 벽에 비추어진 모습을 본 후 몸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그림자를 만들며 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세모, 네모, 하트, 손가락으로 무엇이든 표현하며 작은 손이 아주 큰 그림자가 되어 그림자로 표현되자 그림자놀이에 매력을 느낀 친구들이 아웅, 아웅, 멍멍 ~나타난 그림자를 몸으로 표현하며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이 매일 또 어떤 것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까? 궁금하며 놀이를 따라가며 몰입했습니다. 영아들이 그림자를 이용한 놀이를 지속함에 따라 영아들이 자기신체를 움직여 나타나는 그림자를 관찰하며 토래와 함께 놀이하는 도중 한 영아가 “이건 토끼 같은데?”라고 말하며 옆에 있는 영아의 그림자를 보며 이야기하였고, 영아의 말로 인해 토끼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하며 직접 토끼를 신체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토끼 모형을 가지고 와 그림자를 만들어보기도 하며 놀이가 이루어졌다. 또한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영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직접 신체를 활용해 동물의 그림자를 표현해 보기도 하고 모형을 활용한 그림자를 표현하며 이를 이용한 역할 놀이들이 이루어졌다. 역할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아들이 원하는 동물, 공룡, 여러 가지 물체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반복하다 영아들이 원하는 구체물의 생김새를 따라 하거나 교실 내에 모형이 없어 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영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구체물의 막대 인형과 벽면 그림 자료 더불어 영아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색 막대와 종이, 가위, 풀 등을 제공해 주고 그림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투명 필름지와 쓰기 도구를 제공해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교사의 지원을 통해 영아들이 그림자놀이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졌으며, 교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 영아들이 원하는 놀이재료를 만들어 사용하니 더욱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해 역할 놀이뿐만 아니라 그림자를 활용한 막대 인형극 놀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교실 내에 인형극을 할 수 있는 극장 제작교구를 만들어 지원해 주었고 이를 활용해 교실 내에서 그림자 극장 놀이가 활성화되었다.





빗방울 놀이 [놀이기간 : 23.06.21 - 09.13]

국공립 한양수자인 어린이집 흥빛나라

1. 놀이 시작 배경

작년 여름엔 세찬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어린이들은 “엄마 언제와요?”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었다.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도 ○○이 보고 싶어서 금방 오실 거야”라고 말해주었지만 2살 어린이들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았다. “왜 캄캄한 밤인데 엄마가 안 와요?” 창문을 바라보며 걱정하던 말에서 어린이들이 비가 오는 날 유독 엄마를 찾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비가 오는 날은 어둡해진 하늘 탓에 캄캄한 밤이 됐다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더 많은 비가 내릴 텐데.. 비가 오는 날마다 이 어린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게 될까라는 생각이 함께 스쳐 지나갔다. ‘어린이들이 비를 즐겁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장마 극복”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엄마 언제와요?”



“비는 무서워”



“옷이 젖으면 어떻게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비는 옷이 젖을까 엄마에게 안겨 등원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했다. 어린이에게는 비는 그저 “차갑고 불편하고 옷이 젖는 날”이었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비가 오는 날을 감상해 보고 비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처음 놀이 지원은 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처마 끝 저 멀리에서 비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뻗어 비를 만져보았다. “아 시원해” 비를 맞는 교사의 모습을 본 어린이들은 “까르륵” 웃으며 너도나도 손을 뻗어 비를 만져보고 느끼며 비를 탐색해 보았다.



“비는 시원해”



“비가 우다다닥 내려”



“비가 춤을 추는 것 같아”

비를 직접 만져보고 느껴본 어린이들은 비를 더 이상 무섭고 불편한 것이 아닌 시원하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소리로 놀아요: “우다다닥 비가 내려요”



비가 온 다음 날, 어린이들의 요구로 놀이터에 나가보았다. 어린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를 찾아 멈춰 섰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비를 만져보던 어린이가 손바닥으로 천명천명 빗방울을 튀기기 시작하였다. 이내 “우다다다닥 비가 내려요”라고 말하며 빗방울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꼭 난타 공연을 보는 것처럼 시원하고 즐겁게 느껴졌다. 어린이들이 소리로 빗방울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난타 채를 지원해 주었다. 어린이들은 난타채로 교실 이곳저곳을 두드리며 빗소리를 표현하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악기를 이용해 빗소리 리듬을 연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교실의 모든 곳을 두드리고 나서는 비의 연주가 끝이 났다.

오감으로 놀아요: “비를 느껴요”

교실에도 비가 내린다면?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천을 이용해 비를 지원해 주었다. 빗방울 천에서는 정말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비가 시원해” 하며 비의 촉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비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는 비 피하기 놀이, 빗방울 풍선 잡기 놀이, 우산을 쓰고 친구와 지나가기 등 어린이들은 파랑 천을 비로 느끼며 나만의 놀이로 다양하게 비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놀이의 심화: 비의 정체를 파헤치다

비가 온 뒤 놀이터에 나가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빗방울 찾기 놀이를 시작했다. 빗방울을 찾아 물놀이터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을 발견한 어린이들은 나뭇잎을 주워 배 띄우기 놀이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비가 물이 됐네”라고 말하며 비가 모여 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 빗방울 놀이는 물놀이로 확장되었다.



“내가 비를 찾았어”



“비가 의자에서 쉬고 있나봐”



“비가 물이 되었어”

놀이의 확장: 물과 놀이해요



“내 그림이 움직여”



“물감이 사라졌어”



“빨래 끝~!!”

비가 온 뒤 놀이터 바닥엔 얼룩덜룩 빗자국이 생겨났다. 어린이들은 빗자국을 보며 “이건 누구의 발자국이지?” “누가 그려놓은 거야?”라며 탐정 놀이를 시작했다. 빗자국 놀이에 흥미를 보여 직접 빗자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물총을 지원하였다. 어린이들은 물총을 활용해 비처럼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교실에서는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물티슈에 그림을 그려보았고 물감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한 어린이는 “내 그림이 움직여”라며 매우 흥미로워하였다. 그리고 물티슈 가득 물감을 채워나갔다. 한 어린이가 물티슈를 다시 깨끗하게 해보고 싶다면 물티슈를 물에 담가 보았고 이후 빨래 놀이로 확장되었다. 어린이집 후문에 빨래터를 만들어주어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지원하였다. 어린이들은 물에 손수건을 담갔다, 널기를 반복하며 시원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3. 놀이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 점

여름이 지나고 가을비가 내리던 날, 어린이들이 창문을 보며 “비야 안녕”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우리 우산 쓰고 나가요.”라며 비를 만나보자고 제안하였다.

우산을 쓰고 나간 어린이들은 “내 우산에 비가 내려”, “나무는 시원하겠다.”라고 말하며 비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비가 오는 날이 무섭고 불편한 날이 아니라 나무가 시원해지고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



빗방울 놀이는 어린이의 정서적 공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비 오는 날의 하루였지만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을 놀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놀이의 시도는 어린이들과 비를 바라보고 만져보는 것이었지만 이 작은 놀이 지원 하나로 어린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확장하여 나가고 생각하고 있음에 어린이들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이 굳어져 어린이들의 반응에 무뎠지는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은 “비 오면 놀이터가 젖어서 놀 수 없어”라고 어린이들을 설득하며 놀이터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번 놀이 지원을 통해 비가 온 놀이터에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구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동 놀이 중심을 통해 나는 오늘날 어린이들의 놀이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즐긴다.





평평 눈이 와요~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박정수

1. 놀이의 시작

선선한 가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영아들과 계속 바깥 놀이를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해결책을 찾던 중 어린이집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자, 영아들 모두가 창문 앞에서 “우와”라는 감탄사를 소리 내며 눈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쌓이게 된다면 같이 나가 눈을 만져보고 눈사람을 만들며 놀이할 계획이었으나, 유난히 이번 연도에는 눈 내리는 날이 많지 않았고, 눈이 내리더라도 진눈깨비로 내려 눈이 쌓이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충전제를 구매하여 영아들과 함께 교실에서 눈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2. 다양한 눈놀이

처음 놀이할 때는 오감 매트 안에서 충전제를 손으로 만져보고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며 겨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놀이를 하니 영아들이 눈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며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눈사람과 이글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종이컵 겉면에 눈사람 그림을 붙여주고 종이컵을 하나씩 쌓아보거나, 옆으로 길게 줄 세우기 놀이를 하면서 나만의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놀이하기도 하였으며, 이글루를 구매하여 교실 한켠에 새싹반 이글루를 만들어 겨울 집을 만들며 놀이하였습니다. 처음 이글루를 보고 낯설어하는 영아도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글루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내어 이글루에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글루 안에 미려볼을 넣어주어 반짝반짝 오로라의 모습을 보여주니 영아가 불빛에 관심을 보이며 이글루 안에 들어가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글루 놀이를 하다 이글루가 있는 추운 나라에는 어떤 동물이 사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펭귄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영아들과 펭귄 옷을 입어보고 펭귄으로 변신하여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소 옷을 입기 싫어하는 영아가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펭귄이라는 동물의 옷을 입으니 먼저 관심을 보이고 펭귄 옷을 입어보기도 하였습니다.



3. 놀이의 확장 - 견학

겨울에 견학지를 찾던 중 겨울을 주제로 하는 오감 놀이 견학지가 있어 영아들과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견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겨울 나라에는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겨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놀이를 하니 영아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며 오감 놀이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감 놀이를 처음 시작할 때 손으로 만지지 않으려 하던 영아가 먼저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며 탐색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견학지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니 영아들이 오감 놀이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으며, 새로운 공간에 대해 낯설어하는 영아가 있었는데 이번 놀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 대한 낯설이 조금 해소되고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4. 놀이의 확장 - 가정연계

엄마와 함께 지난밤에 내렸던 눈을 밟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놀이하는 아이



5. 교사의 느낀 점

영아들과 놀이를 하면서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오감 놀이를 많이 경험하였는데, 촉각적으로 예민한 영아들은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힘들어하여 충전제를 만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눈놀이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니 눈놀이에 대한 거부반응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영아가 먼저 다가와 눈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눈이라는 주제가 영아들이 좋아하는 주제여서인지 '눈' 하나만으로 다양한 놀이로 뻗어나갈 수 있어 영아들과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놀이가 점점 확장되어 더 큰 놀이로 전환되고 영아들이 그 놀이에 더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놀이를 계기로 영아들에게 더 다양한 놀이, 놀이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무줄의 재발견

꿈노리 어린이집 이선영

1. 고무줄과의 만남

2월 '탐색'을 주제로 다양한 탐색재료를 활용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교사는 고무줄에 유독 흥미를 보이는 한 영아를 발견한다. 힘을 주는 만큼 늘어나고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고무줄'이라는 자료가 영아들에게는 자유롭게 실험하며 상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사의 기대와 함께 영아들은 고무줄과 만난다.



2. 바깥 놀이에서 고무줄이 빛을 발하다!

한 명의 탐색에서 시작된 고무줄놀이는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한동안 다른 영아들에게는 크게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이에 교사는 고민에 빠진다. '고무줄'이라는 자료를 영아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영아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답을 바깥 놀이에서 찾게 된다. 바깥 놀이를 할 때 영아들은 나뭇가지 혹은 돌맹이 하나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놀이를 창조해 낸다. 고무줄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의 고민에 보답이라도 하듯 영아들은 실외 공간에서 비로소 고무줄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다.



"고무줄을 여기 묶을래요!"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우리 좀 보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고무줄로 물고기 잡자."

"도연아! 내 고무줄 잡아. 그리고 나 따라와."

영아들은 고무줄과 함께 저마다의 방식으로 놀이하며 고무줄의 길이와 탄성을 느껴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저 없이 자료에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3. 탐색 - 끼우고, 걸고, 당기고, 튕기고, 지나가고

드디어 영아들은 고무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영아들이 고무줄을 탐색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 이 탐색 과정에 흥미를 더해 주기 위해 교사는 새로운 자료들을 도입하기로 한다.

영아들은 고무줄을 처음 만난 날부터 고무줄의 한쪽 끝을 어딘가에 감거나 묶어서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이에 교사는 첫 번째 자료로 접이식 행거를 지원한다. 영아들은 행거의 기둥에 고무줄을 걸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묶는 작업에 몰두하였고 고무줄과 행거로 만든 새로운 놀잇감이 탄생하였다. 행거에 고정된 여러 개의 고무줄을 잡아당기고 벌려서 고무줄 사이를 지나가고 통과하는 놀이는 이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영아가 고무줄을 한 방향으로 쭉~ 잡아당겼다가 놓아본다. "우와 고무줄이 계속 흔들려! 와하하, 재밌다. 또 해볼래!" 고무줄을 튕기고 그 반동으로 고무줄이 흔들리는 것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시선으로는 튕겨진 고무줄이 위험하게 느껴진다.

"영아들의 흥미를 이어가면서도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고민하다가 교사는 두 번째 자료로 도넛 백업을 지원한다. 영아들은 백업을 고무줄에 끼워보고 고무줄에 끼워진 백업을 왔다 갔다 옮겨보기도 하고 폭신한 백업으로 무장한 고무줄을 마음껏 튕기며 놀이한다.



4. '함께 놀이'의 발현



검정 고무줄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던 교사는 새로운 형태의 고무줄을 지원하게 된다. 알록달록 색깔의 고무밴드! 이번에도 영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무밴드를 탐색한다. 고무밴드를 두 손으로 잡아서 늘리고 손가락에 하나씩 걸어보고 다시 늘려보기를 반복하던 영아들 사이로 들려오던 또렷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우영아 여기 잡고 있어봐. 내가 이렇게 당겨 볼게. 우와! 세모다.” 손이 모자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영아와 그것을 받아들여 준 영아 사이에 협력이 일어나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작은 손들은 고무밴드를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인다.

5. 고무줄에서 찾은 ‘모양’



고무밴드를 혼자서 또는 친구와 함께 잡고 당겨서 만들어지는 모양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에게 교사는 고무줄을 걸어서 놀이할 수 있는 지오보드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때 교사는 영아들에게 놀이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고무줄을 지오보드에 거는 모습을 두어 번 보여주는데 정도로 가볍게 도움을 준다. 교사의 모습을 본 영아들은 자신들도 지오보드에 고무줄을 자유롭게 걸어보며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것에 몰입한다.

6. 고무줄로 이어진 ‘우리’



고무밴드를 지원하였을 때 발현된 함께 놀이! 밴드가 커지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사는 새로운 추가자료로 탄력 밴드를 지원하게 된다. 처음에는 탄력 밴드 또한 각자의 놀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친구와 탄력 밴드를 맞잡고 당기기를 시도하는 영아들이었다. 둘은 셋으로 셋은 다섯으로 여러이 함께 하는 놀이가 된다. 아마도 영아들은 혼자 힘을 가할 때보다 또래와 함께 당길 때 탄성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 또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듯 보였다. 탐색 초반 자신이 붙들고 있는 고무줄을 또래가 잡으면 방해로 받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던 모습에서 이제는 “친구야, 이거 잡아!” 하며 자발적으로 건네는 모습으로 변화한 영아들을 지켜보는 것은 교사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영아들은 주어진 놀이방식 없이 자유롭게 고무줄을 만났다. 처음에는 영아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던 고무줄놀이가 바깥 놀이를 통해 활발해지고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모양’과 자율적 놀이 안에서 포착된 또래 간의 ‘협력’ 그리고 함께 놀이가 발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사는 다시 한번 영아들의 유능함을 느낀다. 그리고 교사의 친절함 설명 없이도 영아들은 언제나 자료를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0세 친구들의 즐거운 풍선 놀이

논현라운어린이집 이 후 자

1. 놀이 시작 배경

생일 파티 후 생일상을 장식했던 풍선을 본 영아가 “풍 줘, 풍 줘~”하고 예쁜 고사리손을 내밀며 말한다. 교사가 “우리 사랑이 풍선 줘요?”하고 교실 한쪽에 두었던 풍선을 내어주자 다른 영아들도 “나도 나도 줘”하고 말한다. 교사는 ‘아! 오늘은 영아들의 관심이 풍선에 있구나!’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두었던 풍선을 모두 내어주는 것으로 영아들의 풍선 놀이가 시작되었다.

2. 놀이 과정 및 교사지원

‘풍선을 탐색해요’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 풍선의 모양과 색깔, 풍선의 매듭 모양 등을 관찰하는 영아
- 풍선을 던지고 발로 차고, 날아간 풍선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아
- 신나는 동요로 놀이지원



-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전기를 발견한 영아
- “나도 나도”하고 교사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오는 영아
- 영아의 호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놀이지원

‘볼링 놀이’로 확장되었어요

- 놀이 경험을 회상해 스스로 볼링핀을 세우고 볼링 놀이를 시작하는 영아들
- “풍선이 볼링공이 되었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게”
- 볼링 핀을 세워주는 것으로 놀이지원

‘내일은 어떤 방법으로 풍선 놀이를 지원해줄지?’ 활발하게 이어지는 영아들의 풍선 놀이를 보고 고민이 깊어진 교사, 교실 천장에 풍선을 매달아 주었다.

‘손으로 풍선을 쳐요’

- 팔을 뻗어 줄에 매달린 풍선을 손으로 치는 영아들
- 날아간 풍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다시 쳐 내려보는 영아들
- 언어적으로 미러링하며 영아들의 놀이지원

‘복채를 이용해 소리 만들기’로 확장되었어요

- 복채로 풍선을 치며 “통 통”소리를 표현하는 영아
 - 토레의 모습을 모방해 복채로 풍선을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는 영아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놀이지원
- 평소 같았으면 영아들의 놀이가 위험해 보여 제지했겠지만, 즐겁게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맞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놀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영아들이 방해받지 않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었다.



“뭐지?~”



풍선이 날아가네!~



“머리카락이 올라가네!~”



“머리카락이 움직여요”



풍선으로 팡!팡!



풍선으로 볼링핀 쓰러뜨리기



“스앤님 봐봐”손으로 팡~



날아가라 풍선 얹!



복채로 팡~



풍선에서 소리가 나오

'머리로 콩! 콩!' 새로운 놀이 시작~

- 제자리에서 짹 짹 뛰머리로 풍선을 치는 영아
- 짹 짹 뛰었지만, 풍선에 머리가 닿지 않자 "히잉~"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영아

→영아의 손을 잡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놀이지원

"풍선 아래 벽돌블록 길을 만들어 올라가면 머리에 풍선이 닿을까?" 교사가 말하자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풍선 아래 벽돌블록 길을 만들었다.



'깡충 까충'머리로 톡톡!



"선생님이 도와줄까?"

'벽돌블록 길을 걸어요' 놀이가 확장되었어요

- 벽돌블록 길을 걸으면서 머리에 닿는 풍선을 느껴보는 영아
- '천천히 조심조심' 몸의 중심을 잡으며 신체를 조절하는 영아

→놀이공간 확보로 놀이지원



'뛰지 않아도 닿아요!'



머리로 톡!톡!톡!

'파라슈트 놀이'와 '풍선 꾸미기'로 확장되었어요

- 파라슈트를 이용해 토래와 함께하는 놀이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영아들
- 알록달록 스티커로 풍선을 꾸미며 예술을 경험하는 영아

→놀이 파트너로 놀이지원

파라슈트 놀이 후 다음 날 스티커를 이용해 풍선 꾸미기 놀이가 이어졌다. 풍선 꾸미기를 마친 영아들이 풍선을 굴리며 놀이하는 것을 관찰하고 '아하! 커다란 비치볼이 있었지!' 섬광처럼 교사의 머릿속에 비치볼이 떠올랐다.



팡팡! 날아라 풍선~



스티커로 풍선 꾸미기

'비치볼을 굴려요' 놀이가 또다시 확장되었어요

- 넓은 놀이실에서 풍선 대신 커다란 비치볼을 굴리면서 신체운동을 즐기는 영아들
- 경사로에 비치볼을 올려놓고 굴려보는 영아들

→영아들의 놀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놀이지원



"영차!영차!"



'경사로에서도 굴려요'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점

0세 어린 영아 6명이 함께 놀이하고 생활하는 교실에는 개별 영아의 월령과 기질에 따라 활동적인 놀이와 정적인 놀이가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1월의 어느 날 영아들의 풍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놀이에서 교사는 각 영아의 기질과 발달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놀이를 관찰하고 개별 영아의 발달과 기질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놀이 지원을 고민하면서 영아들의 놀이를 따라갔다. 영아들의 풍선 놀이가 1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놀이가 확장되었고, 놀이 과정을 통해 영아들은 점차 토래에게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토래를 모방하기도 하고, 신체운동에 다소 소극적이던 영아도 놀이가 거듭되면서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주도적으로 신체 놀이를 시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0세 어린 영아들이라 놀이 확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놀이 관찰을 통한 교사의 민감한 반응과 놀이 지원으로 단순한 놀이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교사가 보기에 다소 위험한 놀이라고 판단 될 수도 있는 복채로 풍선 치기 놀이(복채를 휘두르다 토래가 맞을 수도 있기에)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한하기보다 안전한 놀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영아들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유연한 대처도 훌륭한 놀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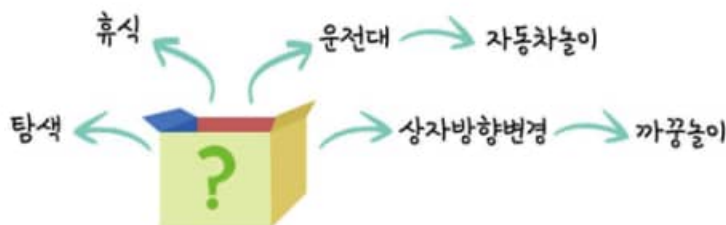


내 마음대로 상자

대답나다문어린이집 서미선

1. 놀이 시작 배경

감히 손흥민도 흉내 낼 수 없다. 아이들의 공간 창출 능력은. 잠깐 사이에 사물함에 들어가 '까꿍'하고 놀라게 하거나 놀잇감 대신 바구니에 들어가 박수를 치며 몸소 진정한 인간 놀잇감으로 거듭나기를 멈추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불편하지 않을까?' 위험한데 어떻게 안전한 놀이로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문득 구석을 좋아하고 밀폐된 곳을 좋아하는 건 어쩔 엄마 뱃속에 있었던 따뜻하고 아늑했던 경험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는 아닐까로 생각이 모아졌고 '인락하고 안정감을 주지만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메이트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 사물함처럼 공간감이 있고 바구니처럼 들어가 앉아도 안전하고 구하기 쉬운 '상자'를 떠올렸고 상자를 이용해 놀이해 보기로 하였다.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1) 무섭지만 재밌어

커다란 상자를 보고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지만 무섭다고 외면하는 영아도 있었다. 관심을 보이는 영아는 색연필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놀이하였고 영아들은 앉아서도 그려보고 일어나서도 그려보며 대소근육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며 놀이했다. 그러나 상자에 대한 관심은 금세 식어갔고 고민을 하던 교사는 영아들에게 추가로 스티커를 제공해 주었다. 평소 스티커 붙이는 놀이를 좋아하는 영아들은 상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스티커를 떼고 붙이며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과 속에서 상자 탐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 거부감을 보이던 친구들도 점차 상자 놀이에 익숙해졌다.



2) 더 이상 이것은 상자가 아니다

상자가 익숙해진 영아들은 상자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하기 시작했다. 인형을 들고 들어가 쉬기도 했으며 때로는 책을 들고 들어가 책을 읽기도 했다. 책을 읽고 휴식을 하는 영아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볼록이나 음식 모형 등을 들고 와 상자 안에서 놀이를 하는 영아들도 있었다. 상자 속에서 서로 다른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 영아가 운전대를 가져와 놀이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아들의 놀이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3) 어? 이게 되는구나?

다양한 놀잇감을 상자 속으로 들고 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놀이가 친구의 모습을 모방하며 놀이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떨어져 있던 상자들은 어느새 한 줄로 이어져 같은 놀이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상자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선생님은 아직 오른손 안 썼다, 왼손으로 방향만 바꿨는데...

영아들이 자동차 놀이에 흥미를 잃어갈 때쯤 상자의 위치와 방향을 바꿔주었다. 상자의 위치와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영아들의 놀이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상자만 보면 운전대를 들고 오던 영아들이 바뀐 상자 속에서는 운전대를 가져오지 않고 옆에 있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까꿍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영아들의 놀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박스에 커튼을 만들어주기로 생각하였다.



5) 친구와 함께 까꿍

상자에 숨자지와 비닐로 커튼을 만들어 제공해주니 영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자로 만든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커튼이 생기자 앞에 있던 선생님과도 까꿍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스에 흥미가 떨어져 관심이 없던 영아들도 커튼을 열고 닫으며 상자 안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료 하나의 변화로 인해 관심이 없던 영아들도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시킬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던 활동이었고 이렇게 즐거웠던 놀이가 마무리되었다.



3. 놀이를 통한 영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 점

위험해! 안 돼!’는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때 순간 돌발 상황이 생기고 신체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0세들과 생활하는 교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단어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하지 않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숨고 오르고 매달리는 영아들의 행동을 돌발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성장의 과정에서 오는 멋진 시도와 도전이라고 우리 반 교사들이 관점을 조금 바꿔 보니 활동을 이끌어가고 제안하고 유지하는 것은 영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자를 이용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니 구석에 숨거나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관심이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와 적극적으로 놀이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이 많아졌다. 또 확장된 상자 놀이를 통해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고 함께 하는 놀이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려는 태도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놀이 활동을 진행할 때는 놀이가 정방향으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정리하며 수많은 발산과 수렴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적인 한계로 교사의 유도과 참여비중이 조금 높지만 그 안에서 영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확장,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국공립부개역코으롱하늘새어린이집 박상희, 김민경

1. 놀이 시작 배경



학기 말이 되어가며 영아들은 친구나 교사를 보면 두 팔 벌려 다가와 안아주거나, 웃어주고, 서툰 발음으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었다. 이러한 긍정적 표현을 하는 영아들에게 교사가 "00아 사랑해"라고 언어적 자극을 주며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었더니 영아도 교사를 따라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다. 좋아하는 친구 혹은 인형을 두 팔로 안아주는 모습도 보여 영아들과 함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놀이를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의 놀이를 소개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요
하트 스티커로
놀이할까요?

01

02

풍선이 하트야
풍선으로
신체놀이해요

03

알록달록 물감
내가 좋아하는
색깔놀이~

친구야
사랑해

조물조물 놀아도
'사랑해'
라고 말해봐

04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1. 하트스티커 놀이

시작은 영아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로 접근해 보았다.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제공해 주었더니, 영아들은 친구나 교사에게 스티커를 떼어 붙이기 시작하였다. 소근육 발달이 빠른 영아는 스스로 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영아들은 스티커 한쪽을 접어서 영아가 쉽게 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영아들은 놀잇감이나 친구의 볼에도 스티커를 붙인 후 손가락으로 쿡쿡 누르거나 쓰다듬기도 했다.



2. 하트풍선 놀이

어린이집 행사를 준비하며 환경에 쓰인 풍선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을 보며 하트모양의 풍선을 준비해 보았다. 풍선을 불기 전의 풍선 모양을 탐색 후 교사가 풍선에 바람을 넣자 부풀어 오른 풍선을 보며 영아들은 박수를 치거나 눈이 동그래지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하트 풍선을 손으로 만져보고 내리치며 통통 소리도 내보고 머리 위로 올려 흔들기도 했다. 풍선을 들고 흔드는 모습에 교사가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노래를 불러

주자 노래에 맞춰 풍선과 몸을 흔들기도 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풍선을 앞뒤로 흔들며 신체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와 하트 풍선을 서로 주고받으며 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3. 도트물감 놀이

최근 다양한 도구로 끼적이기를 하던 중 도트물감을 이용해 스텐실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영아들이 원하는 물감 색을 골라 종이 위에 찍어본 후, 덧대었던 종이를 떼어 하트 모양이 나오자 영아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와~” 하고 반응하였고 두 손을 머리에 올려 큰 하트를 교사에게 보여주는 영아도 있었다. 영아들이 물감 찍기한 종이를 말린 후 교실 바닥에 붙여주었더니 종이를 손바닥으로



만져보고 발로 밟아 보았고, 또 다른 영아는 크레파스로 그 위에 끼적이기를 하기도 했다. 영아가 교사에게 크레파스를 주어 교사가 하트를 그려주자 다른 색의 크레파스를 가져오기도 해 여러 색깔과 크기의 하트를 그려주었고 영아는 교사 옆에서 따라 끼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4. 클레이 놀이



물감 놀이에 이어 보다 입체적인 놀이 재료를 찾아 클레이를 제공해 주었다.

학기 초부터 점토 놀이를 즐겨 해 익숙하기도 하고, 입으로 가져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보다 색감이 다양하고 예쁜 클레이를 선택하게 되었다.

조물조물 만지고 손끝으로 잡고 길

게 늘어보기도 하며 자유롭게 탐색하던 중에 영아 한 명이 놀잇감을 가져와 클레이 위에 찍어보는 것을 보고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였다. 교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하트 모양 틀, 영아들이 좋아하는 동물, 자동차 찰기 도장을 영아에게 제공하였다. 평소엔 놀잇감 찰기 놀이를 해본 영아를 위해 교사가 먼저 하트 틀에 클레이를 눌러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클레이 하트를 본 영아는 자신이 놀이하던 클레이를 교사에게 건네주며 “나, 나”하고 손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린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하트 모양 클레이에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 동물도 찍어보고 다른 친구와 교사에게 보여주었다.

3. 놀이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 점

놀이를 통해 하트 모양을 자주 접하며 친구, 교사와의 긍정적인 표현이 늘어났다. 또래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표현하는 감정과 행동에도 반응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관찰되었다. 친구가 웃으면 따라 웃고 친구가 울면 걱정하는 표정으로 다가가 토닥이며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표현 언어가 쉽지 않은 영아들이지만 ‘하트’라는 모양이 가진 긍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기도 했다.

그동안 계획하고 실행했던 그 어떤 놀이보다 영아들에게 자주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많이 안아주며, 놀이가 지속될수록 교사들도 함께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가 먼저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줄수록 영아들은 교사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영아들과 1년을 함께 하며 우연히 발견된 ‘하트 놀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영아와 교사 모두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다. 0세 반이래진 긴급시킬 때면 서운함이 항상 많았는데 원 없이 안아준 경험으로 형님반으로 영아들을 기쁘게 긴급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원 생활을 하며 2월 활동으로 하트 놀이를 계획해 보아도 좋을 거 같다.





블록은 꼬리의 꼬리를 물다

부평왕은내어린이집 최요셉

1. 놀이 시작 배경

블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레고, 자석 블록, 와플 블록, 벽돌블록 등 이 많은 블록들을 아리솔반 유아들은 매우 사랑했고 즐겨 놀았다. 2 학기로 들어서면서 블록 영역뿐만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도 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끝은 언제나 블록이었다.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블록을 통해 교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미와 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블록이 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내 유닛 블록을 통해 집과 마을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공동작품(경사로 놀이)을 만들어 교사가 바라는 교육적 접근(협동심과 성취감)과 더 즐겁고 활기찬 놀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놀이를 준비하게 되었다.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꼬리를 무는 블록놀이

아리솔반에 새롭게 제시된 유닛 블록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였다. 다양한 크기와 종류를 탐색하며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것을 표현해 보았다.

“선생님 이건 고래 잠수함이에요. 바다로 떠날 수 있어요.

“동물들 놀이터예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요.”

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은 기존에 교실에서 제시되었던 많은 블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닛 블록은 홈이 패이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었기에 블록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바닥에 블록을 내려놓고 서로의 블록을 잇거나 블록 위에 블록을 쌓아 올려야만 했다. 그래서 유아들은 쉽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었으나 반대로 모양이 잘 유지



되는 것 또한 어려웠다. 유아들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블록을 어떻게 배열하고 그 위에 쌓아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각자의 방법을 통해 작품 만들기를 시도하였고 무너지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며 놀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였다.

블록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창의적이었으며 유아들은 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어하였다. 그런데 흥미도에 따라 많은 유아들이 놀이에 참여하였고 놀잇감의 수가 충분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선생님 그런데 블록이 모자라요.”

유아들이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놀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려고 하던 찰나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한 대화가 있었다.

“내가 이거 줄게 긴 네모랑 바꿀래”, “나랑 같이 합쳐서 만들자”

유아들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다. 가지고 있는 블록을 교환하거나 서로 블록을 모아 공동작품을 만드는 등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고 갈등이 해소되니 그로 인해 놀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갔다.



내가 만든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교사는 유닛 블록의 수가 부족함을 알고 그와 비슷한 원리의 ‘기차길’ 놀잇감을 찾았다. 그리고 “집과 길을 구성하여 마을을 형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놀잇감을 제시한 후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차가 빈번하게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길을 서로 정확하게 결속시켜야 매끄럽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길을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하였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모색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놀이 도중 한 유아는 기차가 더 빠르게 움직이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물체의 이동 원리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벽돌블록을 이용하여 길은 이제 경사가 생겼고 유아들은 더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교사는

‘아이들이 경사로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고 이내 구슬을 유아들에게 제시해 주었다.

데굴데굴 경사로 놀이

경사로의 원리와 구슬을 이용하여 놀이가 시작되니 그 어느 때보다 놀이가 크게 확장되었다. 유아들은 경사로를 구성할 때 아래를 지지하는 벽돌블록은 무게중심을 잘 잡도록 구성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곡선에서는 구슬이 이탈하지 않게 옆면을 막아 자연스럽게 구슬이 굴러가도록 만들었다.



“구슬이 여길 통과해서 이 통 안에 들어가야 성공이야.”

“애들아 여기서 내리막길로 해야 끝까지 구슬이 갈 수 있어.”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많은 유아들이 놀이를 진행하니 서로 뒤엎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배려를 통해 질서를 찾았다. 또한 경사로가 실수로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무너진 원인을 찾고 그 상황을 발판 삼아 다른 모양으로 길을 구성해 보며 놀이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놀이가 지속되던 중 유아들이 직접 길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교실에 모인 재활용품 중 우유갑을 이용해 길 만들기에 도전하였다. 교사는 우유갑을 반으로 잘라주고 유아들이 웅기종기 모여 테이프로 우유갑을 이어 붙이기 시작하였다.

“애들아 이렇게 붙이면 더 길게 만들 수 있어.” “거기 잘 잡아 안 그러면 망가지.”

“선생님 여기도 테이프 붙여야 할 거 같아요.”

우유갑을 이용해 만든 경사로는 유아들의 의견에 따라 벽면에 붙여나갔다. 또 구슬을 굴려 가면서 경사의 각도를 조절하였다. 그렇게 테이프를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길을 완성해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원인을 찾아 제시하면 쉽고 빠르게 놀이를 진행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제를 유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던져주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를 기를 수 있었다. 놀이에 대한 흥미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점점 경사로 놀이는 더 어렵고 정교해지며 다양한 함정과 갈림길이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유아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구슬이 도착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을 하며 끝내 성취감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너와 내가 모이면 하나의 블록이 돼

이제 유아들이 각자 크고 작게 만들던 경사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거대한 길로 변신해 갔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니 창의적 발상이 탄생했고 유아들은 그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길을 꺾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구슬이 계속 빠지니깐 여기를 막아버리자.”

“아니야 이 길은 더 높아야 구슬이 굴러가”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점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점점 흥미를 잃는 유아들도 있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 도전이 이어질 수 있는 힌트들을 제공하며 시행착오를 수십번 반복하더라도 놀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보았다. 놀이에서 실패는 유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창의적이며 다양한 실험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침내 유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완성되었고 이제껏 진행되었던 경사로 놀이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놀이에서 유아들은 협력의 가치와 성취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배움을 이어갈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미래의 로봇 박사!

부평맑은내어린이집 조 안 나, 김 지 수

1. 놀이 시작 배경

I am a robot!

특별활동 중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노래가 나타났다! 'I am a robot!' 낯선 언어로 흘러나왔지만, 유아들은 하나가 되어 노래를 흥얼거리고 몸을 신나게 흔들며 보였다. 유아들은 배운 로봇 노래와 율동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로봇이 되어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고 박자에 맞게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일과와 놀이시간에 로봇의 동작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로봇이 되어보아요

점차 유아들은 다양한 놀잇감을 활용해 더 멋진 로봇으로 변신하여 놀이하기 시작했다. 원통 블록을 자신의 팔과 다리에 넣고 움직이며 로봇이 되어보았다. 교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감 나게 로봇 놀이할 방법을 고민하였고 실제 기계처럼 보일 수 있도록 페트병에 호일을 붙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유아들은 호일 페트병을 팔과 다리에 끼워 보며 한층 더 멋있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로봇 놀이에 더욱 몰입해 갔다. 유아들은 팔과 다리에 페트병을 끼운 채 뻗뻗해진 몸으로 혼자 일어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또한 팔과 다리에 페트병을 끼워 놀이하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신체를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어 표현해 볼 수 있었다.



로봇팔과 다리를 만들어보아요

나는 물이 나오는 버튼을 만들 거야!, "다리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는 경찰 로봇이 될 거야. 도둑도 잡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

유아들의 놀이는 단순히 로봇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 다양한 기능을 넣어 로봇이 가진 능력을 표현해 보고 싶어 하였다. 교사는 로봇의 팔과 다리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직접 꾸며보는 것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예술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해 보았다.



유아들은 여러 색깔의 종이를 붙여 다양한 버튼을 만들고, 부채를 접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등 창의적인 로봇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봇은 더 구체화 되어서 갖고 세심한 표현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력과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었다.

나만의 로봇을 만들어요

어느새 로봇이 되어보기에서 나만의 로봇 만들기 놀이가 확장되어 갔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유아들이 자유롭게 로봇을 만들어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있지 않은 소품과 재활용품을 지원해주었다.

요거트 손가락은 팔과 다리, 병뚜껑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이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바퀴로 활용되며 유아들의 상상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만의 로봇을 창조하기 위해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의 상상력은 더욱 발휘되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테이프, 풀, 목공 풀, 가위, 끈 등의 재료들은 로봇을 구성하는 곳곳에서 쓰이면서 재료들의 기능을 익힐 수 있었다. 또 로봇에 붙어 있던 재료가 떨어지거나 연결이 잘되지 않는 등 로봇을 만들며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청소 로봇

유아들은 점점 로봇 놀이에 빠져들어 갔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우리 반에 필요한 로봇을 만들어보기를 제안했다. 유아들은 토끼 로봇, 청소 로봇 등 다양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유아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를 제안하였고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청소 로봇을 만들기로 하였다.

먼저, 로봇의 생김새와 넣고 싶은 기능을 이야기를 나누고 로봇 도안을 그려보았다.



“털실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줘야지, “하트를 잘라서 심장을 만들어 줄 거야!”,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도 달아줄 거예요”

유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점점 더해져 갔고 점점 더 구체화하여 갔다. 로봇의 높은 곳을 꾸밀 때는 의자를 활용하였고, 많은 재료로 인하여 손이 모자랄 경우에는 친구의 손을 빌려 로봇을 만들어 갔다. 유아들은 친구와의 협력과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었다.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유아들은 놀이 안에서 또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함을 갖고 있었다.



“동생들한테 우리가 만든 멋진 로봇 보여주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만든 로봇을 부모님과 동생, 형님반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소 로봇 전시회

교사는 로봇 전시회를 제안하였고 유아들과 함께 로봇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전시할 청소 로봇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로 ‘사파리 세이버 로봇’이라는 이름을 결정한 후에는 아이들과 로봇을 완성할 날짜를 조율하고 전시회 시간과 장소를 고민하였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로봇 전시회를 알릴 수 있는 포스터와 부모님과 형님, 동생들에게 나누어 줄 작은 크기의 초대장도 직접 만들어 전시회에 대한 기대와 놀이에 대한 몰입은 점점 더해갔다.

전시회 기간 동안 유아들은 부모님, 형님, 동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과 협력해 만든 창작물의 결과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3.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 점

아이들의 흥미로 시작한 로봇 만들기는 유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구체화해 보는 좋은 놀이가 되었다. 또 친구들과 협력하여 만든 로봇과 로봇 전시회를 통해 유아들의 경험들을 융합해 가며 지식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며 스스로 배워 나간 값진 놀이가 되었다.

유아들이 로봇을 만들면서 보여준 창의성, 협력, 협동, 안전에 대한 인식은 교사에게 큰 감동과 보람을 주었다. 유아들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특별한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함께 놀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유아들을 통해 또래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로봇 만들기를 하면서 가위 사용, 의자 사용과 같은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서 서로 주의하자 이야기하고 조심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는 모습에 감사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작업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빛이 스며든 겨울

이웃사랑어린이집 조윤주

1. 놀이 시작 배경

겨울놀이를 하다.

"어서오세요. 맛있는 봉어빵있어요."
"봉어빵 한 개만 주세요. 얼마예요?"
"나 엄마랑 봉어빵 먹어 봤어!"

겨울이 되어 영아들은 겨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봉어빵 호빵, 고구마 등 겨울 음식 놀잇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게 놀이로 이어진다. 교사는 겨울 놀이에 어떤 지원을 더 하면 더 흥미롭게 겨울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역할 놀이지만, 겨울음식 놀이가 빛과 만나면 어떤 놀이로 이어질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교실 한 칸에 손전등을 내려주자 영아들은 "우와! 이긴 뭐지?" 하며 손전등을 활용하여 놀이를 시도한다. 영아들의 놀이에 빛이 더해지자 놀이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손전등을 이용해 놀이를 하던 영아들이 손전등을 봉어빵 가게로 가지고 가서 놀이를 한다. 영아는 봉어빵 가게를 만들기 위해 쌓아두었던 블록 사이에 손전등을 내려 놓는다. 우연히 자리 잡은 손전등 위에 고구마와 봉어빵이 올려졌다.



"어? 뜨거우니깐 조심해!"

2. 놀이과정 및 교사지원

빛이 스며들다

영아들은 빛을 이용해 음식을 대우는 놀이로 이어졌다. 영아들은 '빛=뜨거움'으로 인지하였고 영아의 놀이에 스며든 '빛'은 '불'이 되어 놀이에 흥미를 더했다. 빛이 약해진 손전등을 보고 "불이 약해졌어.", "뜨거운 불이 필요해."하며 평범해 보이는 손전등 하나로 인해 아이들은 더 실감 나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빛과 어우러지다.

"애들이 천둥이야 조심해!" "조심해!", "도망가자!"

'딸깍!' 손전등의 전원이 켜지면 교실은 사할벽적해진다. '트리 장식'으로 사용하던 앵두 전구를 아이들이 놀이에 사용하면 어떤 재미있는 놀이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앵두 전구를 과감히 내어주었다. 영아들은 블록을 이용해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더니 앵두 전구를 블록 주변에 두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후~"



작은 전구 알맹이 속에서 반짝이는 빛은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춥'이 되었다. 영아들의 '후~' 소리에 맞춰 다른 영아는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을 끈다. 영아들은 자칫 평범해 보일 있는 블록에 전구를 더함으로써 새로운 흥미를 갖고 놀이를 지속한다. 이어 교사는 영아들의 흥미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빛을 더해주었다. 라이트테이블, 손전등, 앵두 전구,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빛'을 제시해 주자 영아들의 놀이는 점차 다채로워지기 시작한다.

빛에서 발견하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인 놀이를 위해 큰 빛 또는 색깔이 있는 빛을 제시해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다.

영아들에게 더 '큰 빛'을 내어주기 위해 '빔프로젝터'를 켰다. 영아들은 빛이 나오는 곳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이게 뭐야?" 하며 관심을 보인다.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구멍을 가리며 "사라졌네?"하며 탐색하기도 한다. 영아들이 새어 나온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신체를 탐색하였고 영아들은 달라진 빛의 크기만으로도 즐겁게 몰두하였고 "이것 봐! 커졌지?", "점점 작아진다!"하며 놀이한다.

몸을 움직이며 빛에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행위를 통해 그림자의 크기가 변화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빛으로 이야기를 이끈다

"선생님! 불 꺼주세요!"

불이 꺼지는 '딸깍' 소리와 함께 놀이가 시작된다. 영아들은 "영차! 집을 지어요." 노래를 부르며 집을 만든다. 집을 구성한 뒤, 손전등을 앞에 가져다 대며 "집에 불 켜졌어!"한다. 다른 영아가 손전등을 흔들며 "어-어-"하자 뒤에 비친 집 그림자가 흔들린다. "어~ 지진이다!" 하며 영아들은 지진 놀이로 이어졌고 불빛이 흔들리면 집을 부수고 불빛이 멈추었으면 집을 짓기를 반복한다.

"밤이 되었습니다. 코 자고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요."

손전등을 집에 비추던 영아가 파란색 셀로판지를 불빛 앞에 가져다 대자 다른 영아들은 인형들을 모두 자리에 눕힌다. "코~"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잠시 후, 불빛의 색이 다시 하얀색으로 바뀐다. "아이 잘 잤다.", "선생님 이제 일어나세요." 하며 기지개를 켜다.

셀로판지는 불빛의 색을 바꾸며 영아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색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파란 불빛은 밤이 되기도 하고 빨간 불빛은 불길이 되기도 한다.



3. 놀이를 통한 영아의 변화 및 교사의 느낀점

영아들은 빛 놀이를 통해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빛'이라는 매체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놀이하였다. 영아들의 평범했던 일상 속 '빛'이라는 매체가 더해지며 놀이에 흠뻑 빠져들었으며, 이 놀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탐색하며 놀이를 하였다. 놀이의 주체자가 영아가 되는 순간, 영아는 놀이에 흠뻑 빠져들게 되고 그 경험 속에는 특별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센터와 함께해요

2024년 가정육아활성프로그램

우리가족 영양 클래스

-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자녀 동반 참여 불가
- 모집시기: 월 1회
- 장소: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내용: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활동을 진행
- 참고사항: 매월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 및 참여



볼보코리아·한국보육진흥원·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Family Safety

[너랑 나랑, 피카]

- 대상: 인천시 관내 예비부모 10명
- 내용: 소모임 5회기
- 기간: 2024년 6월 ~ 10월
- 신청방법: 부모다움 홈페이지
- 참고사항: 매월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 및 참여

[요즘 아빠, 라떼파파]

- 대상: 인천시 관내 영유아 및 아빠
- 내용: 아빠-자녀 체험 프로그램
- 기간: 2024년 6월 ~ 10월
- 신청방법: 부모다움 홈페이지
- 참고사항: 매월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 및 참여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프로젝트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프로그램: 마음챙김꾸러미(비대면), 마음휴식광장(전문가 특강, 힐링숏캠프), 마음휴식공방(수공예, 요리)
- 목적: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긍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 기간: 3월 ~ 11월
- 참고사항: 매월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 및 참여



센터의 지난 이야기

어린이집지원사업



-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 영유아 센터상담지원 사업설명회,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및 지도교육, K-CDI결과보고서 해석교육, 영유아 센터상담지원 부모대상 영유아 발달특성 이해 교육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컨설팅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컨설팅 컨설턴트 간담회,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장애영유아를 위한 놀이지원, 개별화보육 프로그램(IEP)의 수립 및 지원



-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 참여어린이집 OT, 치료사 OT, 참여 영유아 부모 OT, 치료사 방문순회
-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및 지표교육, 평가제 현장방문 컨설팅, 소그룹 컨설팅



-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
- 표준보육과정 - 놀면서 자란다(영아, 유아)
- 보육교직원 교육 - 신인원장 운영관리 이해, 신입교사 보육과정 이해,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안내, 보육일지 및 관찰평가, 보육교사 권리존중 영상교육, 장애통합 운영 실제, 경력교사 소통 및 스트레스관리, 부모상담 이해 및 설치

- 안전교육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 회계컨설팅지원사업 - 회계 컨설팅, 인천광역시어린이집관리 시스템 입문·활용·심화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 영상교육, 회계컨설팅 모니터링, 필요경비정산교육, 예·결산 및 추정결산 교육
- 마음휴식프로젝트 - 마음 챙김 꾸러미(너를 축하한 DAY, 달콤한 심포♥), 마음 챙김 공방(제로웨이스트 천연삼푸바 만들기, 나만의 유리타일 냄비받침 만들기, 알록달록 전통 바람뿌 만들기, 나만의 화과자 만들기), 마음 휴식 광장(힐링시네마 테라피, 세계일주에서 찾은 인생의 길), 마음힐링캠프



- 영유아성행동문제 -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상담 - 비대면 상담, 개별·집단 상담, 성교육 도서 대여
- 대체교사 지원사업 - OT, 모니터링, 직무교육, 힐링교육, 집단 상담, 간담회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OT, 모니터링

가정양육지원사업

- 도담도담 부모아카데미 - 알쏭달쏭 우리아이 성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 공동부모교육 -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집에서 놀(만서)자(란다), 자녀권리존중 영아 놀이, 발달편 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 유아 놀이편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교육 (소중한 나),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 인천광역시 맞춤형 부모교육 - 「仁아놀자 I」, 「仁아놀자 II」, 「仁아존자 I」, 「仁아존자 II」, 부모자랑
- 인천광역시 맞춤형 부모자녀체험 - 안독이와 함께하는 아이사랑 놀이시리즈(1.전래놀이 2.조물조물 3.뚝딱뚝딱), 안독이와 함께하는 아이사랑안전(1.스마트폰안전 2.악물안전 3.환경보호 4.식품안전)
- 우리가족 영양클래스(부모), 우리가족 영양클래스(부모자녀)



- 달빛부모 카페
- 환경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
- 자연이 숨쉬는 숲놀이



- 사계절 홈쿠킹
- 유아물품 공유한마당(플리마켓)
- 우리가족 주말 농장체험(상반기)



- 유아물품 공유 한마당(플리마켓)
-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레너 - 플레너 위촉, 힐링프로그램(상반기), 사업설명회
- 도담도담 뚝뚝 부모 개별 상담
- Family Safety(불보코리아-한국보육진흥원 연계사업) - 락페파파와 함께하는 숲체험



유관기관
소식



인천광역시어린이집 연합회 소식



도성훈 교육감님과과의 간담회



제1차 이사회의 및 정기총회



재능대 업무협약식



유정복시장님과의 간담회



지구의 날 행사
(탄소중립 기후시민 발대식 참여)



인천환경공단 업무협약식



제2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아동권리 존중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행사

[국공립분과]



교사를 위한 상호작용 관련 교육

[법인분과]



교직원 볼링대회

[직장분과]



보육교직원 놀이중심 관련 교육

[민간분과]



교사권리존중 및 학부모운영위원
부모교육

[가정분과]



정기총회 및 대의원 임원연수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005호, 2023. 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2.24.)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2.24.)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7.)
-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0.07.)
 1.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
 3. 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4. 관할 지역의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개정 2022.2.24.)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2.24.)
-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2.2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모교육 등)

- ①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정책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0.]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005호, 2023. 2. 20., 일부개정]

제9조(비용의 보조)

-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설 2022.2.24.>
- ②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2.2.24.>
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삭제 <2022.2.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26 조례 제38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0-06-21 조례 제44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5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6429호,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4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0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5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6개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20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incheon.childcare.go.kr/>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상담제공

부모다움
<http://bumo.icc.or.kr/>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도담도담장난감월드
<http://www.dodamtoys.or.kr/>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무료대여

인천광역시 보육인포 시스템
<https://www.incheonpool.or.kr/>

어린이집 직접체험 대체교사 관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s://aincheon.co.kr/>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cchildcare>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ncheon_scc/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odamtoys1>
<https://www.instagram.com/dodamtoys2>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